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타난 아버지
부재의 양상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成慶美

2010年 8月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타난 아버지 부재의 양상

指導教授 宋 一 商

成 慶 美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6月

成慶美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0年 8月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타난 아버지 부재의 양상

成慶美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宋一商

본 논문의 목적은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로만(Loman) 집안 3대에 걸친 부자관계를 추적하여 아버지의 부재가 자식들의 성장에 끼치는 다양한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아들들이 바라는 아버지상은 가족의 부양자라는 아버지의 경제적 역할 외에 자신들을 인정해 주고 정신적 성숙과 정체성 확립을 도와주는 인생의 안내자이자 교육자인 점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자신을 인정하고 가르침을 줄 아버지가 부재했던 윌리(Willy)는 상실감 속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아버지의 대리자로 싱글맨(Singleman)과 벤(Ben)을 창조한다. 윌리는 자신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벤의 적자생존의 성공철학과 싱글맨으로부터 인기와 호감을 통한 성공철학을 받아들이지만, 20세기 물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구세대의 상층된 가치관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의 간극으로 성공의 꿈은 와해된다. 결국 윌리는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역할의 실패와 부도덕한 행위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삶을 지탱할 힘을 상실하면서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다.

아버지의 부재로 긍정적인 아버지상을 정립하지 못한 윌리는 보상심리로 아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쏟으며 자신의 성공철학을 전수한다. 윌리는 비프(Biff)와 해피(Happy)를 인기와 개성을 겸비한 성공한 아들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인기와 개성을 강조한 나머지 도덕적인 면을 간과한다. 윌리의 잘못된 교육은 아들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사회의 낙오자가 되게 한다. 윌리의 경우 아버지의 부재는 가치관, 직업관, 교육관 등 윌리의 현재 모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버지의 부재’를 다른 형태로 비프와 해피에게 물려준다.

3대에 걸친 ‘아버지의 부재’를 탐색한 결과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아 헤매고 극 속에 재현해내고자 하는 욕망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성숙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과정이었다. 윌리는 이상적인 아버지의 대리자 싱글맨과 벤을 창조하여 가치관을 확립하고, 벤의 답변과 인정을 얻고자 환상의 세계로 빠진다. 비프는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때면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정을 받고자 집으로 돌아온다. 해피는 비프의 그늘에 가려 윌리의 관심을 덜 받지만, 윌리의 사후에 그의 꿈을 계승함으로써 평생 얻고자 했던 윌리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

『세일즈맨의 죽음』이 밀러의 자전적인 성장과정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볼 때 로만 집안 3대에 걸친 부자관계를 통해서, 밀러 자신이 느꼈던 심리적인 ‘아버지의 부재’가 아버지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 본 논문은 201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 론	1
II. 아버지 부재의 근원적 배경	7
III. 아버지 부재의 양상	
1. 윌리: 과거집착과 현실부적응	16
2. 비프: 애증의 갈등과 자아인식	29
3. 해피: 무관심과 자아회피	43
IV. 결 론	50
Bibliography	53
Abstract	56

I. 서론

현대 미국희곡은 전통적으로 가족극을 고수하면서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를 집중적으로 해부한다. 20세기 초기에는 ‘가족의 가치는 곧 미국의 가치’라는 모토로 가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초점을 두었지만,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후 미국희곡은 사회의 부패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가족의 붕괴와 가족구성원들의 비극적 갈등양상을 극화하기 시작한다. 현대 미국희곡을 대표하는 아서 밀러(Arthur Miller, 1925-2005)는 작품 속에서 이러한 가족의 변화하는 위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밀러는 가족의 붕괴를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의 붕괴의 실상으로 파악한다. 가족이란 구성원들에게 안정과 애정 대신에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조직체로서 권위가 실추된 가정은 가족 내에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족이라는 조직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밀러가 추구한 아버지가 가정과 사회의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는 주제는 미국 문학의 주요한 전통이 되었다. 특히, 1940-50년대를 대표하는 테네시 윌리엄즈(Tennessee Williams)와 밀러로부터 1970년대 이후를 대표하는 샘 셰퍼트(Sam Shepard)와 데이빗 매릿(David Mamet)으로 이어지는 작가군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부재’라는 주제가 다뤄진다. 아버지의 부재는 개척시대의 영웅과 낙원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버림받고 소외된 아들은 현실에서 아버지가 유기한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방황하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아버지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상처를 입는다.

가정은 사회 최소단위로서 정서적 안정과 친밀함의 근원지이며 현대에 들어 비인간화되고 조직화된 여타 사회에 대척되는 사회집단으로 모든 인간적인 가치의 시발점이자 최종적인 안식처이다. 인간은 가족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가족문화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가치관을 확립한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고 자식들의 삶을 이끌어 주는 존재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즉, 가부장제의 질서는 아버지와 남성 중심의 사회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아버지는 권력의 중심에 존재한다. 절대적인 권위자로서 아버지의 권력에의 접근은 금기시 되어왔으며, 아버지는 존경과 무조건적인 복종의 대

상 그리고 힘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생산이라는 공적·사회적 영역과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을 분리해내고,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대부분의 시간을 공적인 영역에서 보내게 된다.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고 성공적일수록 필연적으로 아버지의 가정에서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공적인 영역의 비중이 낮아진다고 해서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의 존재감이 커지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실패한 아버지는 가족의 중심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며 가족으로부터 도피하게 된다. 이렇듯 현대의 가정에서 목격하는 아버지의 부재는 오히려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더 많은 문제의식과 관심을 촉발해 왔으며, 특히 현대 미국희곡에서 집요하게 탐구되어 왔다. 즉, 부재하는 아버지를 탐색하는 가족들의 노력은 극의 중심 테마가 되며 아버지의 부재는 극을 진행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전통적으로 정치·종교·가정의 지배자를 지칭했으나, 근대에 이르러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만을 담당하면서 그 권력의 범위가 축소된다.¹⁾ 전통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혈연관계를 통한 도덕률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20세기 자본주의 핵가족 사회에서는 경제력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가정을 세우고 가정경제를 이끈다는 점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중심에 있지만, 예전에 누렸던 절대 권력을 상실한다. 특히 급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제력을 상실한 아버지는 가정에서조차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다. 무능한 아버지는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도피를 꿈꾸게 되고, 도피는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결국, 아버지의 권위를 상실하고 실패한 아버지는 현실로부터 도피함으로써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부재’라는 상처를 남긴다.

떨러는 가정을 문명의 모체로 본다. 그는 가정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희망을 주거나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의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작품에서 주로 가정 문제를 다룬다고 주장한다.

1) 필립 줄리엔, 『노아의 외투: 아버지에 관한 라캉의 세 가지 견해』, 홍준기 역 (서울: 한길사, 2000), pp. 49-52.

나는 가족환경이나 가족구조에 대해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가족은 인간이 문화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인간경험의 중심이며 최종 종착지라고 생각된다.··· 결국 가족이란 모든 노이로제를 양성시키는 장소이고, 희망을 북돋아주고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이다. 사람들은 뿌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것이 단지 내 작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작품에도 존재하는 이유이다.··· 현재가 어떠하든 그것은 여전히 어머니와 자녀관계, 부부관계, 나머지 가족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모임은 문명의 중심모체인 것이다. 가족이 현재 심한 어려움과의 분투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²⁾

즉, 밀러는 가족을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근원지인 동시에 희망의 온상으로 인식하고 가족의 중요성과 절대성에 대한 믿음을 표명한다. 개인이 겪는 좌절과 개인이 저지르는 죄는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의 문제로 확대된다. 그러나 아무리 처절한 삶을 살지라도 밑바탕에는 가족 간의 사랑의 유대가 존재한다는 밀러의 신념이 깃들어 있다.

밀러는 그의 작품에서 가족 특히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소재로 다루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서전인 『타임벤즈』(*Timebends*)에서 “나의 인생과는 다른 각도에서 조망해보기 위해서, 가끔은 형이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 봄으로써 나의 삶을 재현해왔다”³⁾라고 고백한다. 따라서 그의 작품 속에서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정적 위기는 밀러가 직접 자신의 실재적 삶의 체험을 통해서 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헤럴드 블룸(Harold Bloom)은 “밀러의 모든 작품은 ‘아버지들의 죄’로 이름 붙여져도 무방하다”⁴⁾고 한다. 그가 말한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역할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밀러가 작품에서 끊임없이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과 화해를 다루는 것은 자기 아버지와 그의 갈등과 화해를 표출한 것이다. 밀러에게 아버지 특히 부자간의 갈등은 작품의 젓줄이자 존재근거이다. 어린시절 ‘아버지 역할의 부재’로 긍정적인 아버지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아버지

2) Robert Martin, ed., *Arthur Miller: New Perspective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82), pp. 382-83.

3) Arthur Miller, *Timebends* (New York: Grove, 1987), p. 11.

4) Harold Bloom, "Introduction," *Arthur Miller's All My Sons*, ed. H.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1988), p. 3.

의 상처'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밀러는 작품을 통해 소외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와의 갈등과 화해를 사랑으로 승화시킨다.

밀러의 자서전 『타임벤즈』를 근거로 그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아버지 이시도어 밀러(Isidore Miller)는 유대인 이민자로 문맹이었고, 어머니 오거스타 밀러(Augusta Miller)는 전직 교사로 독서광이었다. 아버지는 온화한 성품을 가진 성공한 여성의류 제조업자였고, 어머니는 사업밖에 모르는 유대인을 경멸하는 섬세하고 이지적인 예술가였다. 어머니는 문화적 소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강압으로 문맹의 아버지와 결혼함으로써 부부간의 갈등이 심했다. 온화한 아버지와 강한 성품을 지닌 어머니와의 불화는 밀러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밀러는 어머니와 지나치게 밀착되어 어머니의 아들로 자랐고, 아버지와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밀러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아버지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모방을 통한 정체성 형성에 고통을 겪는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성격발달이론에 의하면 3-6세 아동은 동성부모를 동일시함으로써 양심과 도덕성의 발달을 이루기 시작한다.⁵⁾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권위의 부재는 특히 아들에게 아버지를 마주하며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의 결핍을 가져온다. 마틴 고트프리트(Martin Gottfried)는 “아버지에 대해 밀러가 느끼는 경멸과 찬사, 분노와 사랑은 그의 평생의 화두였고,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⁶⁾고 지적하고, 또한 밀러를 “평생 토록 아들, 남편, 아버지라는 역할에 불편함을 느꼈던 남자”⁷⁾로 평가한다. 밀러는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신의 유년기에서 채워지지 않아 허기로 남아있던 아버지상을 탐구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정립 하고 있는 것이다.

밀러가 14세가 되던 1929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때문에 주식이 폭락하고 아버지가 파산하면서 어머니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한다. 아버지의 현실적 패배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가정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 권위를 상실한 아버지는 가족에게서 존재감을 상실함으로써 가장으로서 자신의 실자리와 가야

5) 정옥분, 『아동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2003), pp. 140-41.

6) Martin Gottfried, *Arthur Miller: His life and Work* (Cambridge: DaCapo P, 2003), p. 15.

7) Gottfried, 280.

할 길이 사라진 상태에서 방황한다.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상징적 거세는 심리적인 ‘아버지의 부재’의 형태로 밀려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밀러는 작품을 통하여 끊임없이 불완전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재검토하고 수정하여 자신의 내면을 치유한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몰락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거대한 외부의 경제시스템에 의한 희생자로 인식하면서 초라한 모습에 감추어진 정신적인 상처를 이해하고 아버지와 화해하게 된다.

밀러의 대표작 『세일즈맨의 죽음』(*The Death of a Salesman*)은 미국희곡에서 대표적인 아버지의 부재를 상징하는 작품이다. 윌리 로만(Willy Loman)은 끊임없이 부재하는 아버지를 찾는 한편, 이상적인 ‘아버지의 대리자’를 찾아 아들들에게 아버지 역할의 모델로서 아들세대의 삶과 방향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노력한다. 윌리는 가치관의 혼란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아버지의 대리자인 형 벤(Ben)을 불러들여 인정을 받고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즉, 윌리에게 부재하는 아버지는 윌리의 현재를 결정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이고 인정해 주고 가르침을 주는 교육자로서의 존재이다. 아버지 없는 아버지(fatherless father)인 윌리는 자신의 상처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함으로써 아들들 또한 부재하는 아버지를 찾아 자아찾기 여행을 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페미니즘의 도움을 받아 남성학(Men's Studies)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족의 부양자로서 아버지의 위상이 흔들리고, 현대사회의 가부장적 핵가족제도의 위기를 말하는 담론이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남성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다. 아버지가 부재하는 이유, 아버지의 부재가 아들들의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과 화해의 가능성 등 아버지의 부재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이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세일즈맨의 죽음』이 밀러 자신의 자전적 성향이 강한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로만(Loman) 집안 3대에 걸친 아버지의 부재를 탐색함으로써, 아버지의 부재가 아들의 정체성 확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아 헤매고 극 속에 재현해내고자 하는 욕망을 밝히고 아들들이 필요로 하는 아버지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윌리 아버지의 부재를 미국역사에 뿌리를 둔 서부개척시대의 ‘개척정신’과 ‘미국인의 꿈’을 중심으로

밝힐 것이다. 윌리의 아버지는 개척정신의 환상에 빠져 일확천금을 꿈꾸는 전형적인 미국 남성으로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의 책임을 방기하고 가족을 버리고 떠남으로써 남겨진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부재라는 상처를 남긴다. III장에서는 왜곡된 미국인의 꿈을 좇다가 가정에서 부재하는 아버지로 인해 ‘아버지의 상처’를 겪는 아들들(윌리, 비프, 해피)을 조명할 것이다. 윌리의 경우는 올바른 자아인식을 결여한 채 미국인의 성공의 꿈을 추구하다가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실패하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윌리의 현재 상황과 대리 아버지의 설정 그리고 비프와 해피에게 각각 미친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윌리의 친구인 찰리(Charley)의 가치관과 교육관을 비교함으로써 아들들에게 끼친 교육적 측면을 비교할 것이다. 비프의 경우는 한때 영웅이었던 아버지 윌리가 비프에게서 심리적·정서적으로 부재하게 된 원인과 그로 인한 비프의 갈등과 화해를 통한 자아인식에 이르는 과정을 연구할 것이다. 아울러 비프의 그늘에 가려 관심을 덜 받은 해피에게 있어 아버지의 의미와 존재 그리고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아버지 부재의 근원적 배경

초기 미국 이주민들은 아메리카 신대륙을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는 기회의 땅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낙원’(New Eden)의 건설을 꿈꾼다. 구 유럽 즉 과거의 전통이나 관습, 권위와 절연된 새롭고 이상적인 공동사회를 건설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들은 또한 신세계의 개척자이며 성공을 꿈꾸는 야심가들로 근면, 노력, 검소, 돈독한 신앙에 의하여 신분의 귀천이나 빈부에 상관없이 세속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새로운 낙원을 건설하려는 낭만적인 꿈과 함께 입신양명과 물질적 성공이라는 현실적인 부와 성공을 향한 욕구도 크다. 즉 고차원적인 욕구와 물질적인 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행복이 보장된다고 믿는다. 결과적으로 순수한 이상주의와 세속적 물질주의의 두 수레바퀴가 맞물려 미국의 생활철학으로 굳어졌고 ‘미국인의 성공의 꿈’의 실체가 된다.

그러나 ‘미국인의 꿈’은 서부변경의 종말과 남북전쟁 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변질되기 시작한다. 도덕성과 성실성 같은 정신적 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물질적 부만이 ‘미국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경제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사회는 산업주의와 자본주의로 인해 치열한 생존 경쟁시대를 맞게 되고, 적자생존의 경쟁사회가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로 변질된다.

서부개척시대에 역마차를 타고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미국인의 꿈을 쫓아서 서부로 향하던 강인한 남성 이미지는 미국 사회에 남성에 대한 일체감을 갖게 하고 환상을 제공한다.⁸⁾ 즉, 서부개척시대 영웅의 이미지는 미국 문화에서 강인한 남성의 상징으로 발전하였다. ‘변경의 남성’(Frontier Male)이라 불리는 이러한 이미지는 광활한 서부 개척지에서 공동체의 안락한 삶의 속박을 거부한 채 고독하게 삶을 개척하는 인물이고, 정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서부영화의 카우보이 같은 남성이었다. 즉, 미국역사에 근거한 서부개척시대의 ‘변경의 남성’ 이미지는 문학과 영화 그리고 대중의 의식 속에서 강인하고 용감한 남성에 대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정체성과 동일시하기에 이른

8) 왕영균. “현대미국회복에 나타난 남성성의 문제: 『세일즈맨의 죽음』, 『진짜 서부』, 『울타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3, p. 14.

다. 또한 19세기 후반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 창조한 악동 허클베리 핀(Huckleberry Finn)과 같이 기성세대의 문명을 거부하고 친구와 우정을 기반으로 미국을 가로지르는 미시시피강을 따라서 자연에서 모험을 즐기는 영원한 소년의 이미지는 서부영웅과 함께 미국 문학의 남성인물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이 낙원으로의 복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서부개척시대 영웅의 이미지와 자유분방한 소년의 이미지는 강인하고 건강한 미국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미국 남성애에 대한 통념을 강화시킨다.

이민초기의 광활하고 신비로운 신천지에서 지상낙원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던 미국인들은 남성의 독립성·강인함·용맹성·모험성 등을 미덕으로 부각시킨다. 서부영화의 카우보이로 대변되는 이들 남성들은 흔히 ‘일확천금의 꿈’을 좇았는데, 이 꿈은 아버지들을 가정에서 벗어나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며 바깥세상에서 모험하도록 한다. 가정을 떠난 아버지들은 문명의 속박에서 벗어나, ‘개척정신’이라는 미명 하에 가족부양의 책임을 유기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아버지들은 가족을 버리고 금과 다이아몬드를 찾아 끝없이 서부로 향하면서, 여기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 가족관계를 붕괴시킨다. 밀러는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이러한 고뇌하고 방황하는 아버지와 아들에 초점을 맞추어 윌리의 가족을 관객의 의식 속에 다각도로 부각시킨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가족들에게 갈등과 고통을 안겨주는 동시에 극을 진행시키는 힘이다. 윌리의 부재하는 아버지는 현실에서 도피하여 개척신화의 주인공으로 부각된다. 폴 로즈펠트(Paul Rosefeldt)는 “미국인의 꿈의 성취를 고취시킨 서부개척 정신으로 인해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거나 가족으로부터 도피함으로써 오히려 또 다른 불모의 땅을 찾아 나선다”⁹⁾고 지적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부재는 미국역사에 뿌리를 둔 ‘개척정신’과 ‘미국인의 꿈’과 맞물려 이 극의 중요주제로 부각되고, 미국인의 꿈을 숭배하는 극중 인물들은 모두 환상의 세계에 갇혀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윌리에게 부재의 이미지로 남아있는 아버지는 턱수염이 많고, 어머니 무릎에 앉아 들었던 플루트 연주 소리와 같은 어렴풋한 기억 속의 존재이다. 이 극이 플루트 음악으로 시작과 끝을 맺는 것은 윌리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을

9) Paul Rosefeldt, *The Absent Father in Modern Drama* (New York: Peter Lang, 1995), p. 39.

보여준다. 윌리의 플래시백을 통해 등장하는 형 벤은 아버지를 “위대하고 야성적인 남자”(great and wild-hearted man)로 기억한다. 서부개척시대 개척자이자 행상인이었던 윌리의 아버지는 가족을 마차에 싣고 미국인의 꿈을 찾아서 미국 전역을 떠돌며 플루트를 만들어 팔던 진정한 미국의 영웅이며 개척자로 아들들에게 회상된다.

벤: 아버지는 아주 위대하고 야성적인 남자였지. 보스턴에서 출발했는데 당 신께서는 가족을 마차에 싣고 대륙을 횡단했던 말야.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그리고 서부의 주를 다 거쳤지. 도시에 다다르면 도중에 만든 플루트를 팔곤 했지. 아버지는 위대한 발명가였어. 도구 하나만 있으면 너 같은 사람이 한평생 걸려서 만들 것보다도 많은 것을 일주일이면 해내셨지.

윌리: 제 아이들을 바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강인하고 인기 많고, 다재다능하게 말이죠.

Ben: Father was a very great and a very wild-hearted man. We would start in Boston, and he'd toss the whole family into the wagon, and then he'd drive the team right across the country; through Ohio, and Indiana, Michigan, Illinois, and all the Western states. And we'd stop in the towns and sell the flutes that he'd made more in a week than a man like you could make in a lifetime.

Willy: That's just the way I'm bringing them up, Ben-rugged, well liked, all-around.¹⁰⁾ (49)

형 벤에 의해 구체화되는 아버지는 도구 하나만 있으면 윌리가 평생 걸릴 작업을 일주일 만에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손재주에 능하고, 대륙을 횡단하며 플루트를 만들어 판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발명가이자 행상인이다. 또한 개척시대의 자립정신을 대변하는 자유롭고 강인한 남성이다. 부재하는 아버지는 유산처럼 대물림 되어 다음 세대인 아들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윌리와 벤은 아버지를 동경하고 이상화하며 아버지의 서부영웅 이미지를 답는다. 벤은 아버지를 찾아 집

10) Arthur Miller, *Death of a Salesman* (New York: The Viking P, 1969), p. 49. 이하 본문 인용은 본 텍스트의 페이지만 밝힘.

을 떠나고, 윌리는 평생 아버지와 벤을 그리워하며 “그 때 벤과 같이 알래스카에 갔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If I had gone with him to Alaska that time, everything would've have totally different.)(45)라며 벤을 따라 알래스카에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윌리에게 아버지는 삶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으로서 개척시대의 영웅이며 신과 같은 존재이다. 사장 하워드(Howard)에게 내근직을 부탁하러 간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자립정신과 모험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며 가문의 전통에 자부심과 긍지를 드러낸다.

윌리: 아버지는 알래스카에서 오래 사셨소. 모험심이 강한 분이셨지. 우리 집안에는 자립정신의 피가 면면히 흐르고 있소. 난 형님과 함께 알래스카로 아버지를 찾아 가볼까, 그리고 북쪽에서 부친과 함께 정착해 볼까 마음 먹었었소.

Willy: Oh, yeath, my father lived many years in Alaska. He was an adventurous man. We've got quite a little streak of self-reliance in our family. I thought I'd go out with my older brother and try to locate him, and maybe settle in the North with the old man. (81)

이와 같이 윌리는 아버지를 동경하고 이상화하여 그의 개척자정신과 자립정신을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 동시에 가문의 전통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버지의 부재는 윌리의 현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체성의 형성, 직업선택, 자녀교육 등에서 아버지의 부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아버지의 부재는 윌리의 가치관, 직업관, 교육관 등 윌리의 현재 모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아버지 없이 자란 윌리는 이상적인 아버지의 대리자를 찾아서 아들들에게 아버지 역할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개척시대 개척자이자 행상이었던 아버지와,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가 일확천금을 얻은 형 벤, 그리고 부와 명예를 얻고 죽어서는 성공신화를 남긴 전설적인 세일즈맨 데이브 싱글맨(Dave Singleman)을 이상적인 아버지 역할의 모델로 설정한다. 부연하면, 아버지의 강인한 ‘개척정신’과 뛰어난 손재주, 성공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도 불사하는 벤의

적자생존의 성공철학, 그리고 인기와 대인관계를 위주로 한 싱글맨의 성공신화를 받아들여 ‘미국인의 꿈’을 추구하고 자식들에게 전수하고자 한다.

개척자이자 행상인이었던 아버지의 훌륭한 손재주를 물려받은 윌리는 직접 고치고 만드는 일을 좋아하며 자신의 손재주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친구 찰리와 대화에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윌리: 거실에 천장 올린 거 봤나?

찰리: 작품이더군. 천장을 붙인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야. 대체 어떻게 한 건가?

윌리: 말해 준들 무슨 소용인가?

찰리: 그러지 말고 얘기해 보게.

윌리: 자네, 천장을 올려 볼 생각인가?

찰리: 내가 어떻게 천장을 올리겠나?

윌리: 빌어먹을, 그러면서 왜 자꾸 캐묻고 그러지?

찰리: 또 끝났군.

윌리: 연장도 제대로 못 다루는 남자는 남자가 아냐. 자넨 질색이야.

Willy: Did you see the ceiling I put up in the livingroom?

Charley: Yeah, that's a piece of work. To put up a ceiling is a mystery to me. How do you do it?

Willy: What's the difference?

Charley: Well, talk about it.

Willy: You gonna put up a ceiling?

Charley: How could I put up a ceiling?

Willy: Then what the hell are you bothering me for?

Charley: You're insulted again.

Willy: A man who can't handle tools is not a man. You're disgusting.

(44)

윌리는 연장을 다루지 못하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라면서 천장도 제대로 고칠 줄 모르는 찰리를 경멸한다. 윌리가 아버지의 장인의 소질을 이어받아서 손재주가 뛰어난 점은 장례식에서 가족들과 찰리가 나누는 대화에서도 알 수 있다.

비프: 즐거웠던 때도 많았어요. 출장에서 돌아오셨을 때라든지, 일요일에 현관 계단을 만들 때 말예요. 지하실을 완성하고 새 현관을 만들고 여분의 욕실을 만들었죠. 또 차고도 만드셨어요. 찰리 아저씨, 아버지는 세일즈 일보다 현관 만드는 데 더 정성을 쏟았어요.

찰리: 그래. 시멘트 한 포대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이었지.

린다: 손재주가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Biff: There were a lot of nice days. When he'd come home from a trip; or on Sundays, making a stoop; finishing the cellar; putting on the new porch; when he built the extra bathroom; and put up the garage. You know something, Charley, there's more of him in that front stoop than in all the sales he ever made.

Charley: Yeah. He was a happy man with a batch of cement.

Linda: He was so wonderful with his hands. (138)

서부개척시대이나 어울리는 수공업이나 목공예 대한 꿈은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가치관으로 윌리의 모순된 생활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좌절과 실패의 원인이 된다. 윌리는 미국 전역을 떠돌며 플루트를 판 아버지의 기질과 성향을 전수받아 자연에 대한 강한 애착과 전원생활을 그리워한다. 여행하며 영업하는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은 이러한 윌리의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을 반영한다. 윌리는 운전 중에 경치를 즐기고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뒷마당의 느릅나무와 한때는 해마다 피었던 라일락, 등꽃, 함박꽃, 수선화를 그리워한다. 이제는 해가 들지 않아서 아무 것도 자라지 않는 마당에 여전히 씨앗을 심고, 은퇴 후 시골에서 소와 닭을 기르는 전원생활을 꿈꾼다. 그렇지만 윌리는 쏘로우(Henry David Thoreau)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월든(Walden) 숲으로 들어가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전원생활을 시도하지 않는다. 비록 자연이 사라진 도시생활이 그를 황폐하게 하지만 도시에 머물며, 비록 목수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나 세일즈맨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아버지와 벤이 가족을 버리고 성공의 꿈을 좇아서 집을 떠났음에도 윌리는 도시에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자신과 비프의 성공을 꿈꾸며 생활한다.

윌리의 아버지는 대륙을 횡단하며 플루트를 만들어 판 뛰어난 장인이자 개척

시대의 자립정신을 대변하는 영웅이지만, 윌리가 어렸을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 윌리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버지의 흔적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아버지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은 아버지를 이상적인 우상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의 세계로 도피한다.

벤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서부변경의 삶의 방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변경의 남성으로서 아프리카와 알래스카에서의 벤의 모험은 변경의 개인주의와 미지의 세계에서 '개척정신'을 대변한다. 벤은 윌리가 4살 때인 17세에 아버지를 찾아 알래스카로 길을 떠나지만 배를 잘 못 타서 아프리카의 골드 코스트로 가게 되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여 벼락부자가 된다. 벤은 "내가 말이야. 열일곱 살 되던 해 정글로 들어갔거든, 그 뒤 스물한 살 때 나오니까. 큰 부자가 됐네"(52)라며 자랑스럽게 말한다. 벤은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포착하여 성공한 서부개척시대 자수성가형의 남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름이 암시하듯 벤은 독립적인 사람으로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처럼 자수성가한 사람의 신화를 윌리에게 제공한다.¹¹⁾ 벤이 비프와 권투 연습 할 때 "낮선 사람하고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마라. 그렇게 해서 는 결코 정글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49)고 비프에게 충고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거칠고 난폭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윌리는 벤을 최고의 남자 "성공의 화신"(success incarnate)(41)으로 영웅시하고, "답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45)으로 해답을 얻기 위해 의지한다. 자신을 인정하고 가르침을 줄 아버지가 부재했던 윌리는 결핍과 외로움 속에서 아버지를 재현하기 위해 벤을 창조한 것이다. 윌리에게 벤이라는 인물은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이며 "...원하는 것을 알았고, 떠났고, 그것을 가졌던"(...knew what he wanted and went out and got it!)(32) 상징적인 존재이다. 윌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위축되고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최고의 남자'(number one man)의 성공신화로서 벤을 불러들여 인정을 얻고 해답을 구하고자 하나, 벤은 비현실적인 믿음과 희망을 줄 뿐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다.

벤이 활동한 미국의 개척시대는 1890년대 후반으로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가 조직화·기업화되기 이전으로 자유롭고 공격적이며 독립적인 남성을 필요로 했고, 사업가로서 성공의 비결은 사업능력이나 법보다는 모험, 담력, 용기 그리고

11) Eric Mottram, *American Theater* (London: Edward Arnold, 1967), p. 30.

힘에 있었던 시기였다. 벤은 아버지의 강인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이어받아 성공할 수 있었다. 윌리는 아버지와 벤의 개척자적인 자립정신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고 성공에 대한 환상을 품고 살아왔다. 그러한 가치관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지만, 현대사회에 적응하는데 실패한 윌리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윌리는 타인과의 공존을 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은 동료와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거친 사고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버클리 베이츠(Barclay Bates)는 벤의 사고방식을 “먼저 쏘고 나중에 질문하는”(shoot first and ask question later) 성공철학으로 표현하며, 더 이상 미국 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위험한 가치관으로 설명한다.

비록 벤이 훌륭하진 않더라도, 그의 삶의 방식이 한때는 실행가능 했고 필요했었다. 그러나 먼저 쏘고 나중에 질문하는 미국의 개척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윌리보다 더 구세대인 벤일지라도 미국 밖에서 성공과 모험을 찾아야만 한다.¹²⁾

벤의 먼저 쏘고 나중에 질문하는 식의 가치관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개척시대는 이미 끝났지만, 윌리는 벤의 성공철학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윌리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상실감과 외로움에 빠져있고, 그 결핍은 올바른 정체성의 확립을 방해한다. 아버지가 부재할 때 아들들은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환상 속으로 매몰된다. 즉, 윌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동경과 원망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품는다. 영웅적인 개척자로서 이상화시키는 한편, 가족을 방기한 아버지에 대한 애정결핍과 피해의식을 내재하고 있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애정은 아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관심과 사랑으로 표출되어, 결국에는 부자관계에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윌리의 피해의식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현실에서 찾고 가르침을 얻고자 한다. 즉, 윌리는 형 벤과 데이브 싱글맨을 대리 아버지로 설정하고, 이제는 더

12) Barclay Bates, "The Lost Past in *Death of a Salesman*," *Modern Drama*, 11(1968): 164-72.

이상 적합하지 않은 개척시대의 성공철학과 인기위주의 성공철학을 받아들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III. 아버지 부제의 양상

1. 윌리: 과거집착과 현실부적응

『세일즈맨의 죽음』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 외면적으로는 일요일 밤 늦게 집에 돌아온 윌리가 월요일 심야에 자살하기까지 24시간 동안의 사건으로 구성된다. 내면적으로는 윌리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회상형식으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부터 비프의 고등학교 시절에 이르는 과거가 되살아난다. 윌리의 회상을 통해서 모순된 기억들이 표출되고 현재 갈등의 원인이 밝혀지는 긴밀한 구성과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진다. 표면적인 시간상의 전개와 내면의 갈등이 역순으로 전개되면서 씨줄과 날줄이 정교하게 얽힌 것처럼 복합적인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내게 떠오른 첫 이미지-중국에는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완성될-는 무대 전면을 가득 채울 만한 크기의 거대한 얼굴이었다. 이 얼굴이 열리면서 관객은 한 남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실 내가 생각한 작품의 원제는 『그의 머릿속』이었다. 다소 농담조의 이 제목은 윌리의 머리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음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¹³⁾

밀러는 『세일즈맨의 죽음』의 원제로 『그의 머릿속』(*The Inside of his Head*)을 떠올릴 만큼 윌리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욕망의 내면적 탐구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윌리의 모순된 내면세계를 극화하기 위해서 시간상의 전개와 윌리의 내면의 갈등이 역순으로 전개되면서 환상과 현실이 교차된다.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윌리의 머릿속, 즉 모순된 기억들과 분열된 정신상태 그 자체가 무대인 것이다.

극이 시작되면 윌리는 두 개의 커다란 가방을 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작고 허물어질 것 같은 낡은 집으로 귀가한다. 윌리는 체력의 한계와 함께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하고 돌아온 데 대한 사기저하로 풀이 죽어 있다. 그는 평생을 바치다시피 한 회사에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초라하고 무능력한 아버지이다. 평범한 소시민 윌리의 로만(Loman)이라는 성은 공포에 질린 남자로, 겁에 질려

13) Arthur Miller, *Arthur Miller's Collected Plays with an Introduction* (London: Cresset, 1967), p. 23.

혼란에 빠진 사람이다.

로만이라는 성이 윌리의 사회적 계층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프리츠 랑(Fritz Lang)의 『마부스 박사의 유언장』(*The Testament of Dr. Mabuse*)에서 로만이라는 인물, ‘허공에 대고 결코 오지 않을 구조대에 소리치고 있는 공포에 질린 남자’에서 가져왔다는 밀러의 확신을 우리는 알고 있다.¹⁴⁾

즉 윌리는 혼란에 빠지고 공포에 질려 도움을 구하지만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윌리는 아버지와 벤을 따라 알래스카로 황금을 찾는 모험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그에게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에 환상과 확신을 준 인물이 나타난다. 그는 여든넷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31개 주에 판로를 갖고 호텔방에서 전화 한 통으로 수많은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전설적인 세일즈맨 싱글맨이다.

윌리: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이 남자의 인생에서 해볼만하다고 생각했소. 여든네 살이나 되는 나이에든 불구하고 이삼십 개의 도시를 찾아 갈 수 있고, 전화 한 통화로 많은 사람들로 부터 기억되고, 사랑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오. 그가 죽었을 때 그야말로 세일즈맨다운 죽음이었소. 뉴욕에서 출발하여 뉴 헤이븐, 하트퍼트를 경유하여 보스턴으로 가는 열차의 흡연실에서 녹색 벨벳 슬리퍼를 신은 채 죽었으니 말이오. 수백 명의 세일즈맨과 구매자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소. 그 후 몇 달 동안 여러 열차에서는 애도의 분위기가 있었소.

Willy: I realized that selling was the greatest career a man could want. 'Cause what could be more satisfying than to be able to go, at the age of eighty-four, into twenty or thirty different cities, and pick up a phone, and be remembered and loved and helped by so many different people? Do you know? when he died—and by the way he died the death of a salesman, in his green velvet slippers in the smoker of the New York, New Haven and Hartford, going

14) C. W. E. Bigsby, *Modern American Drama 1945-1990* (Cambridge: Cambridge UP, 1992), p. 89.

into Boston-when he died, hundreds of salesman and buyers were at his funeral. Things were sad on a lotta trains for months after that. (81)

싱글맨이 세일즈맨으로 활동하던 시기의 미국은 상업자본의 성장기였다.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은 자유경쟁 체제에서 개척자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열심히 노력하면 물질적 풍요를 이룰 수 있던 시대였다. 또한 개성과 친분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했고, 인간에 대한 존경심과 동업자간의 의리가 있었다. 그러나 윌리가 활동하는 시대는 산업화로 인해 종전의 세일즈맨은 대중광고에 밀려났다. 세일즈맨이란 직업은 이미 낡은 구시대적 이념으로 물질에 가치에 두는 조직화, 기업화된 사회에서는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세일즈맨의 전성시대는 19세기 말 변경이 소멸되면서 막을 내린다. 싱글맨처럼 지인 중심의 소규모 영업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능력 위주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관료사회로 이동해갔다. 서부 개척시대가 막을 내릴 즈음에 윌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추구했던 성공법칙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격변하는 시대적 환경에서 현대 사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세대의 가치관과 미국인의 성공의 꿈에 매달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윌리는 아버지로서 꿈과 위상을 상실한 채 불안하고 혼돈된 가치관 속에서 몰락할 수밖에 없다.

윌리 로만은 미국의 변경시대가 막을 내릴 때 태어났다. 과도기에 성장한 그는 적합한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 문명은 윌 스트리트와 윌든 호수 중에 선택을 필요하게 만들면서 희생을 치르게 한다. 윌든 호수를 선택한 남성은 종종 자기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¹⁵⁾

윌리는 구시대 처세술인 개성과 인기를 통해서 싱글맨처럼 커머도어(Commodore) 호텔의 점심식탁 위에서 모든 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고의 세일즈맨이 될 꿈을 꾸다. 뉴잉글랜드 지방에 판로를 개척한 윌리는 자신의 능력과 인기 그리고 매력을 통한 성공을 확신한다. 남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미소와 독특한 개성을 지닌 사람에게 행운이 온다는 싱글맨의 성공철학은 벤이

15) Bates, 172.

알래스카에 가자고 한 제의를 거절하며 말하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윌리: 무엇을 하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형님. 누구를 아는가와 얼굴에 미소를 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제 말이에요! 알래스카의 모든 돈도 커머도어 호텔 점심식탁에서 거래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말이에요. 이 나라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인기가 있으면, 다이아몬드쯤은 문제가 안 된다 말입니다.

Willy: Because it's not what you do, Ben. It's who you know and the smile on your face! It's contacts. Ben, contacts! The whole wealth of Alaska passes over the lunch table at the Commodore Hotel, and that's the wonder, the wonder of this country, that a man can end with diamonds here on the basis of being liked! (86)

개성과 인기를 통한 윌리의 성공철학은 정체성의 근거가 자신의 내부가 아닌 타인의 시선을 향하는 허점을 드러낸다. 윌리는 타인에게 인정을 얻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긴다.

성공에 이르는 '인간교제'의 매력은 윌리에게는 인과관계를 넘어서 필수적이다. 즉 성공이란 올바른 미소와 최상의 목표, 그리고 타인에게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반하게 하는 넘치는 매력을 지닌 자에게 필연적으로 온다. 윌리는 여드름을 짜내고 겨드랑의 땀을 흘리지 않는 순간부터 사랑과 부가 약속되어 있다는 광고주들이 만들어낸 미국의 신화를 전적으로 받아들였다.¹⁶⁾

매력적인 미소와 호감을 주는 개성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윌리의 성공법칙은 현대사회의 경제논리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그러나 윌리는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들에 끝없이 매달린다.

세일즈맨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하는 직업이다. 인기와 개성은 필수조건이며 한 번 인기를 잃으면 사회에서 낙오되는 운명이다. 그런 까닭에 인기는 윌리와 같은 세일즈맨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16) Gerald Weales, "Arthur Miller: Man and His Image,"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New York: Penguin Books, 1981), p. 356.

장례식에서 찰리는 세일즈맨으로서의 윌리의 처지를 비프와 해피에게 대변해주고 있다.

찰리: 자네 아버지를 비난할 수는 없네. 자넨 잘 모르겠지만 자네 아버지는 세일즈맨이었네. 세일즈맨에겐 인생의 밑바닥이란 있을 수 없네. 직공처럼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의사처럼 매일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아니네. 자네 부친 같은 세일즈맨은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밝은 얼굴로 희망 가득 찬 세상으로 달려가는 분일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으면 그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큰일이야. 세일즈맨은 모자에 얼룩 몇 개만 생겨도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 아무도 자네 아버지를 비난할 사람은 없네. 세일즈맨은 꿈꾸는 사람이야. 그게 필요조건이네.

Charley: Nobody dast blame this man. You don't understand: Willy was a salesman. And for a salesman, there is no rock bottom to the life. He don't put a bolt to a nut, he don't tell you the law or give you medicine. He's a man way out there in the blue, riding on a smile and a shoeshine. And when they start not smiling back-that's an earthquake. And then you get yourself a couple of spots on your hat, and you're finished. Nobody dast blame this man. A salesman is got to dream, boy. It comes with the territory. (138)

윌리는 싱글맨처럼 남에게 호감을 주는 매력적인 미소와 독특한 개성으로 성공하기를 꿈꾸어 왔지만, 미소, 호감, 친교에 의한 영업은 구시대의 방식으로 철저한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판매실적이 떨어지고 건강상의 문제점을 보이자, 사장 하워드는 “사업은 사업이요”(business is business)(80)라는 말 한마디로 윌리를 해고한다. 이에 윌리는 “오렌지 알맹이만 먹고 껍질은 내다버릴 참입니까. 사람은 과일이 아니지 않습니까!”(You can't eat the orange and throw the peel away- a man is not

a piece of fruit!)(80)라며 항변한다. 또한 그는 하워드의 부친인 전 와그너 사장이 뉴욕 사무실 전근을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한다. 윌리는 경제적인 효율성의 원칙 앞에 인간적인 친분은 가치가 없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라는 자본주의 속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벤이 준 다이아몬드 시계를 저당 잡힘으로써, ‘시간이 곧 돈’이라는 자본주의 자명한 이치마저 남의 손에 넘기고 만다. 다시 말해서 윌리는 천성적으로 비즈니스라는 경쟁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인 것이다.

찰리: 자네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팔 수 있는 것이지, 자네 자신이 세일즈맨이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게 우스운 노릇이지만.

윌리: 난 항상 다른 식으로 생각하려 했었던 것 같아.

Charley: The only thing you got in this world is what you can sell.
And the funny thing is that you're salesman, and you don't know that.

Willy: I've always tried to think otherwise, I guess. (97)

월 스트리트(Wall Street)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피고용인은 상품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윌리는 산업화된 도시문명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의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희생된 무력한 소시민을 대표한다. 비프가 빌 올리버(Bill Oliver) 사장에게 인정을 받았고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대줄 거라는 허황된 기대를 하는 윌리는 현대사회의 경쟁체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아내 린다에게 세일즈의 어려움과 출장의 외로움에 대해서 토로한다.

윌리: 너무나 외로워. 특히 장사가 안 되고 이야기 상대가 없을 때 말이오.
이제 다시는 어떤 것도 팔 수 없고 당신이나 아이들을 위해 별이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오.

Willy: 'Cause I get so lonely-especially when business is bad and

there's nobody to talk to. I get the feeling that I'll never sell anything again, that I won't make a living for you, or a business, a business for the boys. (38)

윌리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신의 역할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에서 보내게 된다. 그는 가족의 부양자로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으로 현실적으로 가족의 테두리 밖에 위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자식들에게 심리적으로 부재하는 아버지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죄책감을 느낀다. 결국 심리적으로 자식들과 멀어지고 경제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윌리는 가장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정체성의 혼란과 성공 딜레마에 빠져 불안감을 느낀다.

윌리: 그런데 여보, 웬일인지 모두들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걸어 들어 갈 때 알 수 있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이유는 몰라도 그냥 지나쳐 버리거든. 나 같은 건 눈에 띄지 않는 모양이야. 다른 세일즈맨들은 쉽게 한단 말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억제할 수가 없거든, 난 말이 많아. 남자란 말이 많으면 안 되는 법이야. 찰리만 보더라도 말수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모두들 그 친구를 존경하거든.

Willy: You know, the trouble is, Linda, people don't seem to take to me. ... I know it when I walk in. They seem to laugh at me. ... I don't know the reason for it, but they just pass me by. I'm not noticed. ... Other men- I don't know-they do it easier. I don't know why-I can't stop myself-I talk too much. A man oughta come in with a few words. One thing about Charley. He's a man of few words, and they respect him. (28)

윌리는 열심히 일하고 부단한 성공에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성공의 꿈으로부터 멀어진다. 윌리의 판매실적은 떨어지고 자신감도 위축된다. 결국 그는 수입이 없어 커미션만으로 생활하게 되자 찰리에게 매주 50달러를 빌려서 아내에게 내놓는 신세가 된다. 윌리는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절대적인 가장의 책임이라고 여긴다. 윌리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자 죄의식을 느끼고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이 누적되면서 차츰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탈출하여 환상으로 도피하기 시작한다.

현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울 때, 윌리는 꿈의 세계로 물러선다. 그 세계는 과거와 환상에 대한 장미 빛 추억으로 이루어져 있다. 윌리의 환상은 삶에서 그가 잡을 수 없는 열망과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¹⁷⁾

윌리는 구시대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이미 현실성을 상실한 ‘미국인의 꿈’을 추구하다가, 성공의 꿈으로 향한 모든 분이 굳게 닫힌 자본주의 사회의 몰인간적인 사회체제 속에서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에는 희생당한다. 로버트 호건(Robert Hogan)은 붕괴되어가는 윌리의 심신을 실험이 끝난 뒤 폐기처분을 기다리는 실험실의 쥐로 비유했다.

윌리는 20세기 미국의 꿈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현대인으로, 그 특별한 꿈에 이르는 문이 불가해하게 닫혀있음을 발견한 심리분석학자의 실험실 쥐와 같이 반응하는 현대인이다.¹⁸⁾

즉 윌리는 마지막 할부금의 납입이 끝나자마자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되는 가전제품처럼, 와그너 회사에게 평생을 바치다시피 하지만 경제적 효용가치가 없어지자 버려진다.

윌리는 부도덕한 행위와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경제적 파산으로 인해 스스로 삶을 지탱할 힘을 상실하면서 부모의 역할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 이러한 ‘전락’은 윌리를 부르는 호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장에게 내근직을 부탁하러 간 자리에서 하워드는 여섯 차례나 윌리를 “kid”(76-84)라고 부르고 있다. 성공한 버나드 또한 “윌리 아저씨”(uncle Willy)에서 “키드”(kid)(93)로 호칭한다. 미국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친구처럼 이름만으로 부르는 경향은 특히 최근 몇십 년 사이에 TV 드라마에서 확산되는 변화중 하나이다. 윌리는 자식뿐만 아니라 버나드와 하워드 사장에게도 이름

17) Leah Hadomi, *The Homecoming Theme in Modern Drama: The Return of the Prodigal: "Guilt to be on Your Side"* (New York: The Edwin Mellen P, 1992), p. 51.

18) Robert Hogan, *Arthur Miller*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 1967), p. 21.

뿐만 아니라 “Kid”로 불리는 수모를 겪는다. 이는 아버지로서 윗사람으로서의 존경과 권위의 상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아버지가 부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얻고자 하는 아들의 욕망이 결코 채워지지 못함을 드러낸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사고 타인의 인정을 염두에 두는 윌리의 가치관은 현실에서 외로움을 증폭시키고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윌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자식들에게 주입시킨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으로써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은 타인 지향적 가치관을 나타낸다. 개인의 성실성이나 능력보다는 ‘인기’가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알아주느냐’ 하는 것과 ‘얼굴에 미소를 짓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윌리의 가치관과 그에 따른 교육관은 친구인 찰리의 아들 버나드가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인기도 별로 없고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폄하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또한 비프와 해피가 불성실하게 행동해도 인기만 있으면 된다고 방치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윌리: 버나드가 학교 성적은 좋겠지만, 사회에서는 너희들이 다섯 배는 앞서 갈 거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너희들이 아도니스처럼 미끈하게 잘생겼기 때문이지. 사회에 나와서 두각을 나타내고 자신의 힘을 창조하는 사람이야말로 앞서는 사람이란단다. 인기가 있으면 문제 없다. 나를 봐라. 나는 바이어를 보기 위해 줄을 설 필요가 없단다. “윌리 로만이 여기 왔네!” 한파디면 알아서 모셔가지.

Willy: Bernard can get the best marks in school, y’understand, but when he gets out in the business world, y’understand, you are going to be five times ahead of him. That’s why I thank Almighty God you’re both built like Adonises. Because the man who makes an appearance in the business world, the man who creates personal interest, is the man who gets ahead. Be liked and you will never want. You take me, for instance. I never have to wait in line to see a buyer. “Willy Loman is here!” That’s all they have to know, and I go right through. (33)

윌리는 ‘미국인의 성공의 꿈’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현대 물질문명의 비인간적 사회체제 속에서 소박했던 ‘미국인의 꿈’은 이미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초기의 순수한 꿈을 잊고 허황된 꿈을 좇게 한다. 윌리는 외모와 인기 등 타인의 시선에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이미 퇴색한 미국인의 꿈을 신봉한다. 판단력 부족과 허영심으로 가득한 윌리는 외양은 화려해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들에 끌려 매달리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비프와 해피를 교육했기 때문에 사회와 가정에서 성공의 꿈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간다.

아버지와 동일시를 통하여 건강하고 긍정적인 남성상을 형성하지 못한 윌리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이상적인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닐 카슨(Neil Carson)이 주장하듯 이 극은 윌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자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다루고 있다.¹⁹⁾ 즉 윌리는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개척자정신과 자립정신을 심어주고 아버지처럼 인기 많고 다재다능하게 교육시키고자 한다. 윌리는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지만 달성하지 못하자, 아들 비프를 통해 자신의 성공의 꿈을 대신 이루고자 한다. 그는 두 아들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자신이 신봉하는 성공의 법칙에 따라 교육시킨다.

윌리는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 줄 정신적 지주가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실감을 갖게 된다. 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심리로 자식들에게 집착하고 지나친 정성을 쏟으며 교육한다. 비프와 해피도 아버지를 신과 같은 존재로 신뢰하고 존경한다.

윌리: 너와 해피와 나 말이다. 도시를 구경시켜 주마. 미국은 아름다운 도시와 훌륭한 사람들로 가득하단다. 뉴잉글랜드 사람들은 나를 잘 안단다. 너희들을 데리고 가면 그야말로 대환영일거야. 왜냐하면 애들아, 아버지 친구들이 많아서 뉴잉글랜드 어딜 가든 주차할 수 있고 경찰들이 자기들 차인 양 우리 차를 지켜 주지. 이번 여름이다, 애들아!

Willy: You and Hap and I, and I'll show you all the towns. America is full of beautiful towns and fine, upstanding people. And they

19) Neil Carson, *Arthur Miller* (London: MacMillan, 1982), p. 52.

know me, boys, they know me up and down New England. The finest people. And when I bring you fellas up, there'll be open sesame for all of us, 'cause one thing, boys: I have friends. I can park my car in any street in New England, and the cops protect it like their own. This summer, heh? (31)

부모의 가치관과 교육방법은 자녀의 가치관 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세일즈맨으로서의 윌리의 과장된 여행담은 청소년기의 감수성이 예민한 비프와 해피에게는 중세 영웅들의 무용담과 같았을 것이다. 윌리를 영웅으로 여기고 존경하는 한편 현실과 유리된 허황된 꿈을 꾸다. 비프와 해피는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아버지 윌리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윌리의 가치관과 교육방법은 비프와 해피의 성격과 정체성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윌리는 비프와 해피를 인기 있고 개성과 용기를 겸비한 성공한 아들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인기와 개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도덕적인 면을 간과한다. 비프가 학교에서 공을 훔쳐온 것도 “코치가 너의 진취적인 면을 칭찬해줄 거야”(Coach'll probably congratulate you on your initiative!)(30)라며 두둔한다. 심지어 윌리는 아이들의 겁 없고 용기 있는 면을 벤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비프와 해피에게 공사장에서 모래를 훔쳐오라고 시키기도 한다. 아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칭찬과 처벌이 주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부도덕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결국 윌리의 잘못된 교육으로 비프와 해피는 올바른 도덕성을 습득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상실한 채 방황한다.

윌리는 자식과의 지나친 밀착관계로 인해 아들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성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역기능을 초래한다. 윌리는 자신의 성공이 점점 불가능해지자 비프의 성공에 지나친 기대를 갖고 자신의 성공의 꿈을 보상받고자 한다.

찰리: 내버려 둬.

윌리: 난 그 애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난 빈털터리야, 빈털터리라고.

찰리: 그 앤 굶어 죽지 않아.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아. 잊어버리게.

윌리: 그럼 대체 뭘 신경 쓰란 말인가?

찰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게. 병이 깨지면 병 값은 못 받는다네.

Charley: Let him go.

Willy: I got nothin' to give him, Charley, I'm clean, I'm clean.

Charley: He won't starve. None a them starve. Forget about him.

Willy: Then what have I got to remember?

Charley: You take it too hard. To hell with it. When a deposit bottle is broken you don't get your nickle back. (42-43)

자녀교육이란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도록 격려하며 관심을 갖는 것이지, 윌리처럼 부모의 가치관을 주입하고 부모의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윌리는 아들에게 인기와 개성과 같은 구시대의 성공철학을 주입시키고 자신의 대리만족을 위해 아들의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해 온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윌리의 친구인 찰리는 아들 버나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급변하는 물질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리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웠다. 찰리 자신이 변화하는 현실에 잘 적응하고 사회규범을 따르며, 성실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삶에 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들 버나드가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후 버나드는 “얌전하고 신중하나 자신만만한 청년”(90)으로 성장한다.

윌리가 용기와 담력을 과시하기 위해 비프와 해피에게 공사장에서 모래를 가져오라고 시킬 때, 찰리는 “교도소에는 겁 없는 놈들로 만원이야”(50)라며 강인한 남자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윌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충고한다. 윌리는 용기와 만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아들들에게 도둑질을 시킨 것이다. 윌리는 얼굴도 창백하고 운동도 못하며 인기가 없다고 폄하하던 버나드가 가정을 이루고 대법원에서 변호하는 변호사로 성공한 사실을 알게 되자, 친구 찰리에게 성공비결을 물어본다.

윌리: 자네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지. 저 애한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지.

찰리: 내가 지금까지 버텨 온 건 무슨 일이건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네.

Willy: And you never told him what to do, did you? You never took

any interest in him.

Charley: My salvation is that I never took any interest in anything. (96)

찰리는 윌리처럼 아들과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를 지양하고 적당한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자신과 아들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자식을 윌리처럼 자신의 이상에 짜 맞추거나 강요하지 않고 자식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 장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힘쓴다. 버나드는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책임감 강한 인물로 성장하였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은 성공으로 귀결됐다. 이는 부모의 가치관과 교육관에 따라 자녀들의 인격과 가치관은 물론 삶의 양상도 달라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찰리는 성공한 사업가이다. 현실적이고 성실하며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윌리가 인기와 개성, 용기와 같은 허상에 매달리는 동안 찰리는 미국사회의 자본주의 체제를 정확히 인식한다. 밀러는 “찰리가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가장 고상한 인물”²⁰⁾이라고 말한다. 로이스 고드만(Lois Gordon)은 찰리를 “물질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결코 성공신화에 의해 타락하거나 인간적인 유대감을 잃은 적이 없다”²¹⁾고 평가한다. 아들 버나드 역시 자연스럽게 아버지로부터 겸손과 근면 그리고 인내의 소중함을 배우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룬다.

이처럼 밀러는 찰리와 버나드의 성공을 윌리 부자의 실패와 나란히 대비시켜 놓음으로써 윌리와 찰리의 교육관을 비교하여 각각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자녀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윌리의 비극에 극적 효과를 고조시킨다.

결과적으로 윌리는 자신을 인정하고 가르침을 줄 아버지가 부재했기 때문에 결핍과 외로움 속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를 재현하기 위해 싱글맨이나 벤과 같은 허구의 인물을 창조해 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상실과 결핍을

20) Arthur Miller, "The Family in Modern Drama," *The Theater Essays of Arthur Miller* (New York: The Viking P, 1967), p. 27.

21) Lois Gordon, "Death of a Salesman: An Appreciation," *The Forties: Fiction, Poetry, Drama*, ed. Warren French (Deland: Warren French, 1969), pp. 277-78.

채우기 위해서 형 벤과 싱글맨으로부터 이미 시대에 뒤쳐진 성공철학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두 모델 사이의 상충된 가치관으로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윌리 자신의 능력과의 간극으로 인해 성공의 꿈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불안하고 혼재된 가치 속에서 파경으로 치닫는다. 윌리는 열심히 일하고 부단한 성공에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성공의 꿈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한편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부성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어린시절에 대한 보상심리로 윌리는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벤과 싱글맨으로부터 받아들인 구세대의 성공철학으로 이들을 교육시킨다. 윌리는 인기와 개성을 겸비한 성공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도덕적인 면을 간과하여, 비프와 해피는 도덕적·사회적 결함과 무능력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게 된다.

2. 비프: 애증의 갈등과 자아인식

비프는 고교시절 유명한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로 명성을 날리던 미식축구 선수로 외모도 출중하여 선망의 대상이었다. 시험 때 수많은 관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갈채는 ‘인기’와 ‘개성’만 있으면 성공한다는 윌리의 가치관에 부합하였기에 윌리는 비프에게 집착하고 그의 성공을 확신한다.

윌리: 젊은 영웅 같았지. 헤라클레스라고나 할까. 그 아이 주변에 온통 태양이 감싸고 있었고, 날 보고 손을 흔든 것 기억하오? 세 개 대학에서 온 대표들이 옆에 서 있는데 말이오? 내가 데리고 간 구매 담당자들도 있고. 우리 애가 나올 때 그 함성이라니. 로만, 로만, 로만! 아무렴, 그놈은 크게 될 거야. 것처럼 훌륭하고 빛나는 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

Willy: Like a young god. Hercules-something like that. And the sun, the sun all around him. Remember how he waved to me? Right up from the field,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ree colleges standing by? And the buyers I brought, and the cheers when he

came out-Loman, Loman, Loman! God Almighty, he'll be great yet. A star like that, magnificent, can never really fade away!(68)

윌리도 한창시절에는 자신감 넘치는 사회인이었고, 자식들과도 상호 애정과 신뢰를 구축했으며 아내에게도 자상한 남편이었음을 작품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하워드 사장과 대화에서 “1928년에 주당 평균 170달러였단 말이요. 그 때 당신 부친이 내게 오셔서...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말야...”(82)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윌리는 뉴잉글랜드에 판로를 열고 세일즈맨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었다.

『세일즈맨의 죽음』 전편을 통해 볼 때 윌리의 성격은 허영, 가식, 망상, 부적응, 자식에 대한 과잉기대, 그리고 다소간의 자아인식 부족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들이 결국 윌리에게서 헛된 꿈과 잘못된 이상 및 지적 부정직성 등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다행히 윌리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을 발견해 보려고 애쓴다. 그의 개성은 확실히 극의 전편을 지배하고 있으며, 다른 등장인물과 강하게 상호작용한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과 그러하다. 그의 개성적 활동은 확실히 수동적 성격의 개성과는 다르다. 윌리의 적극적인 자세, 즉 성공적 ‘세일즈맨’이 되어 보려는 생각과 훌륭한 가장이 되어야겠다는 애쓰는 태도는 『모두 나의 아들』(*All My Sons*)에서 주인공 조 켈러(Joe Keller)와 흡사하다. 특히 아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해주려는 욕망에서는 아주 근사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윌리와 조우는 실패를 딛고 새 생활에 도전하는 지혜를 갖지 못하고 자살함으로써 심리적 부적응자였음을 드러낸다.²²⁾

물질적 성공에 대한 부단한 열망과 노력에도 윌리는 개성과 인기를 통한 구시대의 성공철학과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선택으로 성공의 꿈은 점차 허상이 되어간다. 열등의식과 패배감이 누적된 윌리는 자신감도 위축되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공의 꿈을 비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자신의 성공의 꿈속에 비프를 가두어 놓고 성공의 법칙을 주입한다.

22) Jong-sun Kim, *Arthur Miller: Recognition of Self and Society* (Taegu: Keimyung UP, 1982), p. 49.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나르시시즘의 재탄생을 의미한다. 나르시시즘의 ‘재생’, ‘부활’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포기했던 꿈과 소원을 투사시킨다. 예컨대 우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극성스런 과용과 부모들의 보상심리가 자녀들에게 투사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볼 수 있다.²³⁾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대리만족의 꿈을 이룬다. 즉 윌리는 성공의 꿈의 실현가능성이 점차 줄어들자 비프를 통한 대리만족의 꿈에 집착한다.

에베츠 필드(Ebbets Field)에서의 축구시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윌리가 비프에게 갖는 광적인 성공의 꿈에 대한 기대와, 윌리가 심어준 영웅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는 비프의 ‘성공 이데올로기’의 표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프: (윌리의 손을 잡고)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아빠, 이번 토요일에 아빠를 위해서 꼭 뚫고 들어가 터치다운을 하겠어요.

해피: 패스하기로 돼 있잖아.

비프: 아빠를 위해 한 번만 할게요. 잘 보세요. 아빠. 제가 헬멧을 벗으면,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엔드라인으로 돌진할 테니까 잘 보세요.

윌리: (비프에게 키스하며) 내가 보스턴에 가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렴.

Biff: (taking Willy's hand) This Saturday, Pop, this Saturday- just for you, I'm going to break through for a touchdown.

Happy: You're supposed to pass.

Biff: I'm takin' one play for Pop. You watch me, Pop, and when I take off my helmet, that means I'm breakin' out. Then watch me crash through that line!

Willy: (kisses Biff) Oh, wait'll I tell this in Boston! (32)

비프는 팀의 주장이면서도 아버지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돌출행동으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한다. 비프는 아버지의 모순된 가치관을 자양분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윌리의 성공의 꿈의 한 모델로서 양육된다. 필드(B. S. Field)는 윌리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주물을 제조하듯이 아들들을 키우려 했던 것”이라고

23) 이유헌, 「동성연애와 도착증」, 『우리시대의 욕망 읽기: 정신분석과 문화』, 라깡과 현재정신분석학회 편저 (서울: 문예, 1999), p. 212.

말한다. 즉 비프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과도한 노력으로 자신의 정체성마저 상실한 채 영웅이 되려고 한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의 과정 없이 윌리의 성공의 꿈속에서 그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위선적인 생활을 하며 자아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가족부양이라는 아버지의 의무는 아버지를 가정 밖에서 일하고 머무르게 만들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부재가 필연적이다. 시대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은 변하지만 최우선 기대가치는 여전히 가족부양의 의무이다. 이곳저곳을 방문하여 물건을 팔아야 하는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은 아버지를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이고 이는 비프가 느끼는 아버지의 부재의 심리적 측면이다. 윌리는 서부개척시대 개척자이자 행상인이었던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일확천금의 꿈을 좇아 알래스카로 떠남으로써 평생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상실감과 외로움을 겪어야 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재를 다른 형태로 비프와 해피에게 물려주었다. 아들들은 아버지 없는 아버지인 윌리로 인해 평생 아버지 부재 증후군을 겪는 자녀에 해당한다. ‘아버지 부재 증후군’이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증오심, 반항심, 불안감, 우울증, 성 정체성의 혼란 등을 겪는 아들들을 이른다. 아버지의 잦은 지방출장으로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비프를 의식해서 윌리는 언젠가는 개인 사업을 해서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길 위에서 일을 해야 하는 “외근직 사원”(Road Man)임을(80) 고려하면 이러한 윌리의 약속은 실현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비프: 아빠, 이번엔 어디 다녀오셨어요? 치, 아빠가 없어서 우린 너무 외로웠어요.

윌리: (기뻐서 아이들을 팔로 껴안으며 무대 앞으로 나간다.) 외로웠다고?

비프: 만날 보고 싶었어요.

윌리: 말 안 할 거지? 얘들아, 비밀을 알려주마.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나중에 개인 사업을 할 거란다. 그러면 다시는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된단다.

Biff: Where'd you go this time, Dad? Gee we were lonesome for you.

Willy: (pleased, puts an arm around each boy and they come down to

the apron) Lonesome, heh?

Biff: Missed you every minute.

Willy: Don't say? Tell you a secret, boys, Don't breathe it to a soul.

Someday I'll have my own business, and I'll never have to leave home any more. (30)

산업혁명 이전의 아버지들은 가족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집 근처에서 자신의 재산을 돌볼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의 복잡한 생활패턴은 아버지들을 더 자주 그리고 더 멀리 떠나게 했고 자식들로부터 멀어지게 했다.²⁴⁾ 즉, 현대사회에서는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또한 직장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삶의 간격으로 확대되었고 아버지들은 가족들과 친밀감의 공백으로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비프가 보스턴호텔에서 윌리의 외도를 목격하고 더 이상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게 된 순간부터 윌리는 비프에게 부재하는 아버지가 된다. 비프는 수학시험에 낙제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의 탁월한 대인관계 능력을 믿고 수학선생님을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하러 출장 중인 아버지를 찾아 보스턴으로 간다. 그 때 비프는 호텔방에서 아버지가 낯선 여인과 함께 있는 장면을 발견하고, 신과 같은 존재로 믿었던 아버지의 도덕적 타락에 삶의 의지가 마비된다. 비프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는 값진 물건이 될 실크스타킹을 여인에게 주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신념은 무너진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충격을 받고 분노와 두려움을 갖는다. 결국 비프는 하계강좌를 수강하여 낙제를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출하여 대학진학을 포기한다. 케네디(Sighle Kennedy)는 비프는 “아버지 인생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과 그 허위로 양육된 자신의 삶도 모두 거짓임을 깨닫는다”²⁵⁾라고 언급한다. 결국 비프는 신뢰했던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른 자신의 삶도 거짓임을 깨달으면서 아버지가 바라는 전도양양한 축구선수로서의 성공적인 인생을 포기한다.

비프는 “거짓말쟁이”(liar), “가짜”(fake), “엔터리”(phony)라고 윌리를 거침없

24) 루이지 조야, 『아버지란 무엇인가』, 이은정 역 (서울: 르네상스, 2009), p. 372.

25) Sighle Kennedy, “Who killed the Salesman?,” *Catholic World*. 17(May, 1950): 113.

이 비난하며 뛰쳐나간다. 비프의 외침은 윌리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신과 같은 아버지의 지위’를 ‘사기꾼’으로 전락시킨다. 구매처 접수계원과 불륜을 저지른 윌리는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권위를 상실하고, 사실상 삶의 희망을 잃게 된다. 불륜사건은 윌리의 억압된 과거의 기억이 되어 현재를 지배하며, 17년 동안 비프와의 갈등관계에서 비프를 통해 자신의 죄를 반복적으로 투영하게 되면서 윌리는 과거기억의 노예가 된다.²⁶⁾ 비프는 윌리의 보스턴에서의 불륜관계에 저항했다기 보다는 윌리가 일생동안 신봉했던 그릇된 이상 자체에 저항한 것이다.²⁷⁾ 한편 헤럴드 클러맨(Harold Clurman)은 “밀러 극의 질서정연한 세계를 깨트리는 충격은 항상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여하는 도덕적 권위를 지닌 역을 잘 해내지 못하는 무능함에서 시작된다”²⁸⁾고 언급한다. 비프는 윌리의 도덕적 실패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 성장이 중단되고 영웅시 하던 아버지와 갈등을 초래한다. 즉 아버지의 불륜사건으로부터 받은 충격으로 비프는 미래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채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한다. 해피에게 “난 어린 아이 같아”(I’m like a boy)(17)라고 고백하였듯이, 비프는 윌리의 부정을 목격한 17세에 머물러 정신적 성장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부자간의 일방적인 종속관계 속에서 윌리의 헛된 꿈만 먹고 성장한 비프는 자신의 환멸을 상쇄시킬 수 있는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보스턴 사건 이후 비프는 인생의 목표를 정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그 때마다 윌리가 부풀려 놓은 헛된 꿈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만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윌리가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꿈에 매달려 파멸했던 것처럼, 비프 또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

오늘날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자기기만, 자기 연민, 그리고 좌절의 늪 속에서 몸부림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간들이어서, 갈망하는 환상으로 자신들을 달래며, 지나친 사랑 혹은 사랑의 결핍으로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파멸시킨다.²⁹⁾

26) Steven P. Feldman, "Weak Spots in Business Ethics: A Psycho-Analytic Study of Competition and Memory in *Death of a Salesm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44.4(2003): 395.

27) Winifred L. Dusenbury, *The Theme of Loneliness in Modern American Drama* (Florida: Univ. of Florida P, 1960), p. 52.

28) Harold Clurman, ed., *The Portable Arthur Miller* (New York: The Viking P, 1971), p. 145.

29) Elmer Rice, "American Theater and Human Spirit," *American Playwrights on Drama*, ed. Horst

즉, 비프는 윌리와 의 지나친 밀착관계로 자신의 욕구를 부인하고 윌리를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윌리에 대한 이상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지금 자신의 존재의 위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비프의 아버지 에 대한 영웅숭배의 감정은 혐오감으로 바뀐다. 비프는 아버지 윌리를 더 이상 신적인 존재도 영웅도 아닌, 욕욕이 가득한 초라한 남자로 바라본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게 된 순간부터 윌리는 그에게 ‘부재하는 아버지’가 된다. 비프에게 하루아침에 그동안 숭배의 대상이던 윌리가 ‘인간’(man)으로, 결국에는 ‘광인’(madman)으로까지 추락한다.³⁰⁾

장남 비프에게 윌리는 신과 같은 존재였으므로, 아버지가 모든 비행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심지어 수학시험에서의 낙제도 ‘고쳐’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아들들에게 윌리는 뉴잉글랜드의 ‘판매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욕이 없는 진짜 신에게나 가능한 일이었고, 17세 비프가 수학시험의 낙제를 해결해달라는 놀라운 임무수행을 위해 보스턴으로 갔을 때 그는 윌리가 음탕한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슬피 운다. 비프는 용서와 이해를 빌며 신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아버지를 버린다.³¹⁾

그러나 윌리는 비프의 실패원인을 자신의 외도와 결부시키는데 망설인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친다. 윌리는 ‘미국인의 성공의 꿈’을 추구하고 자식들의 성공만을 최우선시 하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질서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법보다는 모험, 담력, 힘을 성공의 조건으로 여기고, “낮선 사람과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마라”(40)는 벤의 성공철학을 받아들인 윌리는 윤리, 도덕의식이 결핍된 상태이다. 비프의 눈에는 호텔방에서 여자에게 스타킹이나 선물하는 아버지는 가장의 책임을 이미 저버린 한낱 무력한 인간으로 비취지며, 참된 가치관이 결여된 도덕적으로 타락한 아버지로 보이기에 그의 언행은 모두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 윌리는 비프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여

Frenz (New York: The Viking P, 1965), p. 117.

30) Daniel E. Schneider, "Play of Dreams,"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New York: The Viking P, 1971), p. 254.

31) Schneider, 253.

기에 윌리의 한계가 있다.

비프의 실패의 원인이 윌리 자신의 도덕적 결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17년 동안이나 인정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아버지의 의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다. 밀러의 초기작품인 『모두 나의 아들』에서 주인공 조 켈러의 대사는 가족이 제일이며 가족관계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다는 가족우선주의의 면모가 잘 나타난다. 조 켈러는 전쟁 중에 불량 비행기 부품을 납품하여 돈을 벌었으나 발각되어 기소된다.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아내의 말에 조는, 가장으로서 생계와 부양의 의무를 다했고 아버지와 아들사이에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말한다.

내가 아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그는 나의 아들이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의 아버지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머리에 총알을 박겠어.³²⁾

조와 마찬가지로 윌리는 타인이나 도덕적 책임보다는 가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도는 비프에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즉 가족관계에서는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회에 나가면 비프가 다섯 배는 앞서 성공하리라던 기대와 반대로, 대법원에서 변론하는 법관으로 출세한 버나드를 통해서 윌리는 자기기만의 실상에 부딪힌다. 윌리는 버나드에게 비프가 실패와 좌절만 거듭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버나드는 비프의 실패는 보스턴에서 일어난 일과 관계가 있음을 윌리에게 깨우쳐 준다.

버나드: 비프가 돌아왔을 그 당시의 일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의문이었으니까요... 거의 한달 만에 비프가 운동화를 신고 돌아왔더군요. ‘버지니아 대학’이라고 새겨진 운동화 있잖아요. 그 운동화를 무척 사랑했고, 항상 신고 다녔죠. 그런데 그 운동화를 지하실 난로 속에 넣어 태워버린 거예요... 비프가 인생을 포기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참 이상하죠. 보스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저씨?

32) Arthur Miller, *All My Sons* (Harmosworth: Penguin Books, 1980), pp. 162-63.

Bernard: Well, just that when he came back-I'll never forget this, it always mystifies me... And he came back after that month and took his sneakers-remember those sneakers with 'University of Virginia' printed on them? He was so proud of those, wore them everyday. And took them down in the cellar, and burned them up in the furnace... I've often thought of how strange it was that I knew he'd given up his life. What happened in Boston, Willy? (94)

마침내 윌리는 버나드를 통하여 지난 수년간 품어왔던 의심의 내막을 알게 된다. 과거에 그토록 자신을 존경하며 따르던 비프가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무시해 버린 비프의 실패와 방황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그러나 “보스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윌리 아저씨?”라는 버나드의 질문을 받고 당황한 윌리는 “자식이 인생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게 아버지의 잘못인가?”(94)라며 반발한다. 비프의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윌리가 평생 열렬히 추구해온 성공의 꿈의 실패를 의미하므로 윌리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변호하는 것이다.

윌리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아들의 성공을 바랬지만, 실상은 기대와 반대로 나타난다. 싱글맨이나 벤의 가르침이 윌리의 인생에 무용했던 것처럼, 윌리의 성공철학도 비프와 해피의 삶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윌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아들들에게 대물림함으로써 아들의 인생 또한 실패하게 만든 것이다. 윌리의 ‘부재하는 아버지’에서부터 이어진 가치체계들은 결국 아들세대로까지 계승된 것이다. 밀러는 작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극의 중심부로 끌어올리면서, 아버지 세대의 가치관이 아들 세대로 ‘대물림’되는 과정을 보여준다.³³⁾ 결과적으로 자신의 분신과 같은 비프의 실패는 윌리의 인생에 또 다른 실패가 되어 고통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윌리가 오랫동안 열렬히 추구해온 ‘미국인의 꿈’을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기에, 그는 절망뿐인 현실을 행복했던 추억으로 뒤범벅 시켜, 현실과 환상 가운데서 몽롱한 의식으로 해석해 버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열등감과

33) C. W. E. Bigsby, "Death of a Salesman: In Memoriam," *Arthur Miller's Death of a Salesman,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1988), p. 117.

패배의식만이 쌓이게 되고 낙담한 윌리의 머릿속에는 현재와 과거, 즉 자기인식과 자기기만이 한데 섞여서 스스로의 실패를 합리화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린다.

윌리가 아버지에게 상반된 감정을 가졌던 것처럼 비프도 윌리에게 증오와 애정의 감정을 품는다. 아버지와의 불화로 집을 떠나 있던 비프가 귀향하면서 갈등이 촉발된다. 비프는 성공은 고사하고 생활의 기반마저 마련하지 못한 채 34세가 되도록 중서부의 목장을 전전하며 주급 35달러의 목동 일을 하고, 습관적인 도벽 때문에 교도소에 드나들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비프: 해피, 난 전쟁 전에 집을 떠나 이삼십 개의 온갖 직장을 전전했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 그걸 최근에야 깨달았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 농장에 봄이 올 때면 나는 갑자기 젠장, 나는 아무것도 못 하구 있구나 하는 느낌에 사로잡히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주당 28달러에 말이나 데리고 놀면서! 서른네 살인데 미래를 설계해야지. 그래서 집으로 뛰어온 거야. 그러고선 이 꼴 좀 봐.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해있지... 언제나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집에 와서 보면 내가 한 일이라곤 인생을 허비한 것 밖에 없어.

Biff: Hap, I've had twenty or thirty different kinds of jobs since I left home before the war, and it always turns out the same. I just realized it lately... It's why I came home now, I guess, because I realized it... And whenever spring comes to where I am, I suddenly get the feeling, my God, I'm not gettin' anywhere! What the hell am I doing, playing around with horses, twenty-eight dollars a week! I'm thirty-four years old, I oughta be makin' my future. That's when I come running home. And now, I get here, and I don't know what to do with myself... I've always made a point of not wasting my life and everytime I come back here I know that all I've done is to waste my life. (22)

고교시절 유명 축구선수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선망과 갈채를 한 몸에 받으며 자신의 꿈을 충족시켜 주던 비프의 실패는 윌리에게 실망을 넘어 노여움과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비프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윌리와 마찰을 빚으면서도 “나도

미래를 설계해야지. 그게 내가 돌아온 이유야.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해 있지”(22)라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때면 집으로 돌아온다. 그렇지만 정작 왜 집에 돌아왔는지 자신도 확신을 못하고 있다. 밀러는 베이징 공연에서 비프 역을 맡은 배우에게 비프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와의 갈등을 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덜고 자유해지기 위해서였다”³⁴⁾고 직접 설명해준다. 즉, 비프는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그의 인정과 가르침을 받고자 집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비프는 아버지와 화해에 실패하고 다시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는 “행운을 빌어주실 거죠, 대장?”(You gonna wish me luck, scout?), “악수해요 아버지”(Shake hands, Dad), “이런 식으로 떠나고 싶지는 않아요”(I was hoping not go this way.)(129) 등 끊임없이 아버지의 인정을 얻고 축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윌리는 외면한다. 윌리는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경제적 역할 뿐만 아니라 아들들을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는 역할에서도 무능력하다.

윌리의 갈등과 희생 그리고 자살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프의 성공을 위한 선택인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극적 행동은 각각 아버지와 아들의 지나친 애정관계에서 비롯된다. 부자간의 애정이 진실 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됨으로써 삶의 덧이 되어버린다. 비프는 어머니 린다로부터 아버지의 자살기도 소식을 듣고 곤경에 빠진 아버지를 돕기 위해 플로리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리버와 담판을 벌이기 위해 찾아간다. 비프는 60세가 넘어서도 순회판매를 다녀야하는 아버지, 평생 자식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에게 그의 희망이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예전 직장 사장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서 아버지가 평생 추구한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고자 한다. 종일 기다리다가 겨우 대면하게 된 순간, 올리버가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자 충격을 받은 비프는 무심결에 사무실의 만년필을 훔쳐 계단을 뛰어 내려간다. 문득, 계단에 멈춰 서서 창밖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자문한다. 왜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 구차한 삶을 사는가를 생각하고는, 자신의 정체성에 새로운 인식을 얻는다. 자신이 속한 곳이 도시의 사무실이 아니라 전원 속의 목초지임을 깨닫는다. 더 이상 아버지가 기대하는 식의

34) Arthur Miller, *Salesman in Beijing* (New York: The Viking P, 1984), p. 71.

성공을 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된 비프는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아버지의 허황된 꿈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했음을 인식한다.

비프: 전 오늘 만년필을 손에 쥐고, 11층이나 뛰어내려 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멈췄죠. 제 말 듣고 계세요? 하늘을 보았죠. 제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본거죠. 일하는 것, 먹는 것, 앉아서 담배 피우는 것 말이에요. 만년필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걸 훔쳤을까 하구요. 나는 왜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할까? 왜 구차하게 구걸이나 하면서 사무실에 갇혀 있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건 모두 바깥 세상에 펼쳐져 있고,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말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왜 전 그것을 말할 수 없죠, 아버지?

Biff: I ran down eleven flights with a pen in my hand today. And suddenly I stopped, you hear me? And in the middle of that office building, do you hear this? I stopped in the middle of that building and I saw the sky. I saw the things that I love in this world. The work and the food and time to sit and smoke. And I looked at the pen and said to myself, what the hell am I grabbing this for? Why am I trying to become what I don't want to be? What am I doing in an office, making a contemptuous, begging fool for myself, when all I want is out there, waiting for me the minute I say I know who I am. Why can't I say that, Willy? (105)

마침내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아 발견에 도달한 비프는 윌리에게도 헛된 꿈과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설득한다.

비프: 전 별 불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요.

윌리: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대들며) 난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난 윌리 로만이고, 넌 비프 로만이야!

비프: 전 사람들을 이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일해 봤자 결국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세일즈맨에 불과할 뿐이라고요! 전 시간당 1달러짜리 인간이에요. 일곱 개의 주를 돌아

다녔어도 그 값 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었다고요! 아시겠어요? 더 이상 상을 들고 집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런 건 기대하지도 마세요!

Biff: I'm a dime a dozen, and so are you!

Willy: (turning on him now in an uncontrolled outburst) I am not a dime a dozen! I am Willy Loman, and you are Biff Loman!

Biff: I am not a leader of men. Willy, and neither are you. You were never anything but a hard-working drummer who I ended in the ash can like all the rest of them! I'm one dollar an hour, Willy! I tried seven states and couldn't raise it. A buck an hour! Do you gather my meaning? I'm not bringing home any prize any more, you're going to stop waiting for me to bring them home. (105)

비프는 한때 로만가족의 “헤라클레스와 같은”(Hercules-something like that)(68) 영웅이었지만, 현재는 “한 시간에 일 달러짜리 인생”(a dime a dozen)(105)으로 전락한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윌리는 끝까지 자기기만 속에서 권위와 자존심을 지키려고 발버둥친다. 비프의 고백은 윌리로 하여금 보스턴호텔에서 아들에게 발각됐던 괴로운 순간들을 회상하도록 하는 촉매역할을 할 뿐이다. 윌리는 버나드를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자각했으면서도, 비프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비프는 끝까지 환상을 고집하고 철저하게 자기인식이 결핍된 윌리에게 연민을 느끼고 동정의 눈물을 흘리며 포옹한다. 그 순간 윌리는 비프의 눈물에 감동받고 영원히 상실된 줄 알았던 아들의 사랑을 회복했다고 믿는다.

윌리: (한참 후 놀라고 들떠서) 신기하지 않소? 비프 그 녀석이 날 좋아해!

린다: 비프는 당신을 사랑해요. 여보.

해피: (깊이 감동받아서) 언제나 그랬어요, 아버지.

윌리: 비프가! (흥분하여 쳐다보며) 그놈이 울었어! 나에게 안겨 울었다고!
(사랑의 감정에 벅차 목이 메어, 자신의 믿음을 내뿜는다.) 저 애는, 저 애는 훌륭하게 될 거야.

Willy: (after a long pause, astonished, elevated) Isn't that- isn't remarkable? Biff- he likes me.

Linda: He loves you, Willy.

Happy: (deeply moved) Always did, Pop.

Willy: Oh, Biff! (staring widely) He cried! Cried to me. (He is choking with his love, and now cries out his promise) That boy- that boy is going to be magnificent! (133)

비프의 절망적인 행동을 윌리는 존경과 사랑으로 해석하고, 그의 존경과 사랑에 보상할 길을 모색한다. 제럴드 웨일즈(Gerald Weales)는 “윌리는 비프의 눈물을 사랑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방법만이 옳은 것이라는 일종의 확신과 보증으로 여긴다”³⁵⁾고 주장한다. 비프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윌리는 비프의 성공에 다시 한 번 희망을 갖는다. 그것은 비프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에게 2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하여 자살하는 방법이다. 윌리의 모습에는 아버지로서 무언가를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강한 부성애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반영되었기에 관객들은 연민과 감동을 느낀다. 윌리는 비프의 눈물 어린 호소로 자신의 실패를 직시하지만 실패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끝까지 성공의 꿈을 지키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 윌리에게 비프에 대한 사랑은 의심할 바 없으며 그의 자살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공의 꿈을 비프가 이루기를 희망하는 윌리의 꿈은 처절하다.

그는(윌리는)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아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포용하며 용서하였다는 것이다. 윌리가 언제나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던 즉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승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그를 위한 영역을 닫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의 죄의 대가이다. 이것은 후손에게 “힘”을 부여함으로써 그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는 성공에 대한 생각에서 구체화된 위조된 존엄성과 거짓 화폐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힘은 보험금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재산인 자신을 판매함으로써 나오는 것이다.³⁶⁾

35) Gerald Weales, "Arthur Miller's Shifting Image of Man," *Arthur Miller: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9), p. 134.

윌리가 성찰의 과정을 통한 자아인식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자신을 팔아버림으로써 아들을 위한 사랑과 책임을 다한 때문이다. 윌리는 비록 왜곡된 성공의 꿈일지언정 극도로 진지하게 추구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현대사회의 소시민이다. 아버지의 부재로 상실감과 외로움을 겪은 윌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헤메지만 결국 자아성찰에 이르지 못하고 아들들에게 영원히 부재하는 아버지가 된다.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윌리 로만은 조 켈러처럼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살아왔고, 자신의 삶을 이어줄 아들 때문에 죽는다”³⁷⁾라고 부자관계의 갈등양상을 표현한다. 그렇지만 윌리의 자살로써 그의 성공의 꿈으로 비프와 연결됐던 사랑과 죄의 끈은 끊어지고 비프가 해방되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의 지나친 밀착관계 속에서 그의 허황된 성공의 꿈만 먹고 성장한 비프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더 이상 그를 존경하지 않고 그의 가치관을 버리지만 자신의 환멸을 상쇄시킬 수 있는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비프는 목장을 전전하며 방황하다가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아버지의 인정과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집으로 돌아온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의 성공의 꿈의 실체를 인식하고 자아인식에 이른다. 그는 윌리처럼 도시에서 성공한다는 꿈을 포기하고, 손수 일할 수 있는 전원 속 목초지에서의 삶을 택한다. 이는 윌리가 진정으로 원하던 목가적 생활을 의미하는데, 비프는 아버지의 양면성, 즉 도시와 전원의 삶에서 하나만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 꿈은 포기함으로써 보다 충만한 정신적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이다.

3. 해피: 무관심과 자아회피

해피는 비프와 비교해서 아버지의 애정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지만 아버

36) Miller, *Arthur Miller's Collected Plays with an Introduction*, 34.

37) Raymond Williams, "The Realism of Arthur Miller," *Arthur Miller: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 Prentice Hall, 1969), p. 74.

지의 죽음 후에 비프와는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그는 아버지가 품었던 허망한 ‘미국인의 꿈’을 계승하여 다시 한번 도시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해피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자아인식이나 아버지의 성공의 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못하였지만, 아버지의 “최고의 남자”의 꿈을 계승하여 평생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부모의 인정을 얻고자 한다. 앨런 루이스(Allan Lewis)도 해피와 비프의 관계에 대해서 “두 아들의 대조에는 극적인 힘이 있다. 해피는 윌리의 거짓된 삶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신념들을 계승할 것이다”³⁸⁾라고 말한다.

해피는 비프처럼 한때의 스타도 아니었기에 비프의 그늘에 가려 윌리에게 관심을 덜 받는다. 해피는 부모의 애정을 얻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필사적이다. 비프의 축구시합에만 신경을 쏟는 윌리에게 “아버지 요즘 체중이 줄었어요, 아시죠?”(I’m losing weight, you notice, pop?)(33)라며 시선을 끌지만 윌리는 즐냄기가 타이핑 연습에 좋다며 권할 뿐이다. 해피는 또한 어머니에게도 “저 결혼하려고 해요.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I’m gonna get married, Mom. I wanted to tell you.)(68)라고 얘기하지만 린다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려 가라는 말로 무시한다. 해피는 “제가 아버지 퇴직하시면 편히 사시게 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잖아요”(Pop, I told you I’m gonna retire you for life.)(41)라고 윌리가 퇴직 후에 부양하겠다고 계획을 밝힌다. 윌리는 주급 70달러로 여자와 자동차 그리고 아파트에 돈 쓰면서 자신을 부양할 수 있겠느냐고 해피에게 면박을 주고 역정을 낼 뿐이다. 해피는 가족의 관심밖에 머물러 있다. 비프를 편애하는 아버지로 인해 해피는 애정결핍과 소외감에 빠져 청소년기를 보낸다.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한 해피는 성인이 되어 인근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고 부모와 더욱 소원하게 지낸다. 해피에게 윌리는 심리적으로 부재하는 아버지가 된다. 해피가 더 이상 존경하지 않고 관심과 애정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순간부터 윌리는 부재하는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를 상실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들들은 ‘아버지의 상처’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한다. 아들들은 부재하는 아버지를 이상화시키거나 자신의 삶 속에 아버지의 모습을 재생한다. 윌리의 위도는 해피의 성적 매력을 통해서 나타나고

38) Allen Lewis, *The Contemporary Theatre* (New York: Crown Publishers, 1971), p. 353.

월리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모습은 해피가 패배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해피, 키가 크고 힘이 있어 보인다. 성적매력이 엿보이고, 많은 여자들 또한 그에게 풍기는 강한 체취를 느낀다. 형처럼 방황하지만, 전혀 다른 식이다. 그는 패배에 직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보기엔 형보다 더 만족스러워 보이지만, 더 갈피를 못 잡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 (19)

해피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목장을 전전하는 비프와 달리 직장이 있고 아파트라는 거처가 있기 때문에 외관상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피는 여자와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적인 생활에 빠져 있고 직장에서도 능력에 의한 성공이 아닌 요행수를 바랄뿐이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정신적인 가치가 부재하는 인물이다.

해피는 도시에서 “아파트, 자동차, 여자들”(23)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물질적 성공을 꿈꾼다. 해피는 보조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리의 호감을 통한 성공의 꿈을 추구한다. 그는 허세를 부리는 월리처럼 직장에서 낮은 위치에서 근무하면서도 상사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하고 자신의 위치를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이 우월한 사람인양 행동한다. 해피는 “주위에 있는 녀석들이 하나 같이 틀려먹은 녀석들이라서 내 이상까지도 끌어내려야 한단 말이야”(Everybody around me is so false that I'm constantly lowering my ideals.)(124)라며 자신의 낮은 지위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해피는 월리의 ‘도덕성의 부재’를 전수받아 거짓말하기, 바람피우기, 허풍떨기 등을 그대로 답습하며, 여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는다. 린다는 이런 그를 “바람둥이 건달”(philandering bum)이라고 치부한다. 월리가 위도를 했던 것처럼 자신보다 직위가 높은 그래서 열등감을 갖게 하는 상사들의 애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대리만족을 즐긴다. 해피의 이러한 행동양식은 비프에게 가려져 성장하였기 때문에 생긴 지나친 경쟁심과, 직장상사에게 경쟁의식을 느끼므로 나온 행동이다.

해피: 내가 지금 하는 일이라곤 판매주임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야. 내가 판매주임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 주임은 나와 친한데, 룡아일랜드에

끝내주는 집을 지었어. 거기서 두 달 쯤 살다가 팔고 다시 새로운 걸 짓는 중이야. 일이 끝나면 싫증을 내거든, 나도 그럴 것 같지만. 내가 뭘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때는 아파트에 혼자 틀어박혀 있기도 해. 매달 내는 집세 좀 생각해 봐. 미친 것이지.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그게 내가 바라던 일인걸. 내 아파트, 내 자동차 그리고 여자들. 그런데도 빌어먹을, 외롭긴 마찬가지야.

Happy: All I can do now is wait for the merchandise manager to die. And suppose I get to be merchandise manager? He's a good friend of mine, and he just built a terrific estate on Long Island. And he lived there about two months and sold it, and now he's building another one. He can't enjoy it once it's finished. And I know that's just what I would do. I don't know what the hell I'm workin' for. Sometimes I sit in my apartment- all alone. And I think of the rent I'm paying. And it's crazy. But then, it's what I always wanted. My own apartment, a car, and plenty of women. And still, goddammit, I'm lonely. (23)

해피는 직장에서 단계적인 승진을 위한 노력은 않고 판매 주임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등 도덕성이 결여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한다. 그는 일인자를 꿈꾸고 자신이 큰 인물임을 보여주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해피는 필사적으로 윌리의 삶의 규범을 따르고 애정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윌리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다. 상실감과 외로움 속에서, 윌리가 성공의 꿈에 집착하여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처럼 해피도 현재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보상심리로 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한다.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해피는 만족이나 성취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 해피는 플로리다 사업계획을 축하하기 위한 저녁모임에서 거의 공황상태에 빠진 아버지를 외면하고 여자들과 수작을 부린다. 해피는 “아니,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저 아는 사람이에요. 자 비프를 따라갑시다. 한 바탕 거리를 누벼 보자고요”(No. that's not my father. He's just a guy. Come on. We'll catch Biff, and honey, we're going to paint this town!)(115-116)라며 결국 아버지를 외면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

부모의 가치관과 교육방법은 자녀의 가치관 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윌

리의 허황된 성공에의 꿈과 부도덕한 윤리의식을 전수 받고, 애정과 관심을 덜 받고 성장한 해피는 갈피를 못 잡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 해피는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원하기보다, 요행수를 바라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자신을 방어하고 부인한다.

비프: 날 좀 도와줘.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겠어.

해피: 미쳤어? 무엇 때문에?

비프: 나에게 것처럼 많은 액수의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아셔야만 해. 아버진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당신에게 분풀이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해피: 그렇긴 하지만, 근사한 걸 말씀드려.

비프: 그렇게 할 수 없어.

해피: 내일 올리버하고 점심 약속 있다고 말씀드려.

비프: 그럼, 내일은 어찌라고?

Biff: You gotta help me, Hap, I'm gonna tell Pop.

Happy: You crazy? What for?

Biff: Hap, he's got to understand that I'm not the man somebody lends that kind of money to. He thinks I've been spiting him all these years and it's eating him up.

Happy: That's just it. You tell him something nice.

Biff: I can't.

Happy: Say you got a lunch date with Oliver tomorrow.

Biff: So what do I do tomorrow? (105)

위의 대화에서처럼 해피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곧 드러날 임기응변으로 현재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한다. 결국 해피는 비프와 윌리의 진실한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장례식 장면에서 비프와 해피는 윌리의 죽음으로부터 상반된 결론을 이끌어 낸다. 자신에 대한 자각을 얻고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한 비프는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꾸었어요. 완전히, 완전히 잘못된 꿈이었죠.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He had the wrong dreams. All,

all, wrong. He never knew who he was.)(138)라고 말하며 허황된 성공의 꿈에 젖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불쌍한 남자로 아버지를 평가한다. 반면 해피는 가족들 중에서 가장 슬퍼하며 “몹시 분노하는”(deeply angered)(137) 아들이다. 윌리의 죽음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우리가 도와드렸을 텐데”(There was no necessity for it. We would've helped him.)(137)라고 말하면서 슬퍼한다. 해피는 아버지는 무능력한 면도 있었지만, 훌륭한 꿈의 소유자였으며 뉴욕에 남아 아버지가 생전에 못다 이룬 “최고의 남자”의 꿈을 대신 이루겠다고 다짐한다.

비프: 나와 같이 가지 않을래?

해피: 난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 난 이 도시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난 장판을 제압할 거야!

비프: 난 나를 알아.

해피: 그래, 좋아. 난 형과 다를 사람들에게 윌리 로만이 헛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 주겠어. 아버지에게는 멋진 꿈이 있었어. 유일한 꿈이었지. 최고가 되는 것. 아버지는 여기서 싸웠고 내가 아버지 대신 여기서 쟁취할 거야.

Biff: Why don't you come with me, Happy?

Happy: I'm not licked that easily. I'm staying right in this city, and I'm gonna beat this racket!

Biff: I know who I am, kid.

Happy: All right, boy. I'm gonna show you and everybody else that Willy Loman did not die in vain. He had a good dream. It's the only dream you can have to come out number-one-man. He fought it out here, and this is where's I'm gonna win it for him. (138-139)

해피는 비프와 비교해서 아버지의 애정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아버지에게 환멸을 일으킬 만한 사건을 겪지 않았기에, 아버지의 이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품었던 허망한 ‘미국인의 꿈’을 계승하여 다시 한번 도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끝까지 자아인식에 이르지 못하고, 아버지의 성공의 꿈의

허상을 보지 못한 채 윌리와 같이 실패한 삶을 되풀이 할 것이다. 위니프레드 듀젠버리(Winifred Dusenbury)는 해피와 비프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비프는 아버지의 물질주의에 맞서 고의로 실패자가 되지만, 해피는 아버지의 이상의 잘못 조차 모르고 그 이상을 이어받는다고 말한다.

해피는 아버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 해피는 윌리의 교육의 결과를 보여준다. 비프가 윌리의 물질주의에 대항하여 고의로 실패하게 된 반면에, 해피는 윌리가 가진 이상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산다.³⁹⁾

비프는 윌리의 의도로 그가 추구해 온 물질적인 성공에 반감을 갖고 일부러 패배자가 된다. 반면 해피는 윌리에게 환멸을 일으킬 만한 사건을 겪지 않았고 자아의식의 정도가 극히 낮아서 윌리의 허황된 꿈을 계승하려 한다.

해피는 도시에 남아서 아버지의 성공의 꿈을 재현할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비록 정체성이나 아버지의 성공의 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못하였지만,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을 얻으려는 노력을 포기한 순간부터 부재하게 된 아버지를 다시 인정하고 성공의 꿈을 대신 성취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는 평생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39) Winifred Dusenbury, *The Theme of Loneliness in Modern American Drama* (Gainesville: Univ. of Florida P, 1960), p. 24.

IV. 결 론

밀러는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올바른 자아인식을 결여한 채 왜곡된 ‘미국인의 꿈’을 좇다가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실패한 주인공들을 다룬다. 이들은 개척정신의 환상에 빠져 일확천금을 꿈꾸는 전형적인 미국 남성들로 미국의 역사적·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고뇌하고 방황하는 아버지이며 아들이다. 2차대전 전후의 혼란기에 미국인들은 도덕과 성실에 기초한 성공이 아닌 물질주의를 신봉하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성공에만 몰두한다. 즉, 미국인들은 미국인의 꿈을 그릇되게 수용함으로써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한다. 가정은 주인공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권위가 실추된 가장은 가정 내에서 존재감을 상실하면서 가정의 붕괴를 야기한다. 밀러는 이러한 가족의 붕괴를 ‘미국인의 꿈’의 붕괴의 실상으로 파악한 것이다.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아들들이 각자 부재하는 아버지를 찾아 헤매고 극속에 재현해내고자 하는 욕망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성숙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윌리는 자신을 인정하고 가르침을 줄 아버지가 부재했기 때문에 결핍과 외로움 속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아버지의 대리자인 싱글맨과 벤을 창조했다. 자신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벤의 강인함과 적자생존의 성공철학과 싱글맨으로부터 인기와 호감을 통한 성공철학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20세기 물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구시대의 상층된 가치관으로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윌리 자신의 능력과의 간극으로 성공의 꿈은 와해된다. 결국 윌리는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역할의 실패와 부도덕한 행위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삶을 지탱할 힘을 상실하면서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

윌리의 아버지와 형 벤은 문명이라는 현실에서 도피하여 개척신화의 주인공 이미지가 부각된다. 부재하는 아버지들은 서부개척시대 ‘개척정신’과 일확천금의 ‘미국인의 꿈’을 좇아 가족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 윌리는 벤과 싱글맨에게서 아버지의 부재를 대신할 가르침을 기대하지만 구세대의 성공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좌절한다. 윌리는 도덕과 성실에 기초한 성공

이 아닌, 물질주의를 신봉하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성공에만 몰두하는 왜곡된 ‘미국인의 꿈’을 수용함으로써 가치관의 혼란으로 가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 주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여 결국 가족을 붕괴시킨다.

아버지의 부재로 긍정적인 아버지상을 정립하지 못한 윌리는 보상심리로 비프와 해피에게 지나친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자신의 성공철학을 전수한다. 윌리는 비프와 해피를 인기와 개성을 겸비한 성공한 아들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인기와 개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도덕적인 면을 간과한다. 윌리의 부도덕한 교육은 아들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사회의 낙오자가 되게 한다. 아버지의 부재는 가치관, 직업관, 교육관 등 윌리의 현재 모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버지의 부재’를 다른 형태로 현실의 아들들에게도 물려준다.

비프는 윌리의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받고 성장하지만 그의 의도를 목격한 후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하여 방황한다. 결국에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아인식에 이른다. 한편 해피는 비프의 그늘에 가려 윌리에게 관심을 덜 받고 자란다.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정체성이나 그의 성공의 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그가 품었던 허망한 ‘미국인의 꿈’을 계승하여 도시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로만 집안 3대에 걸친 ‘아버지의 부재’를 탐색한 결과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아 헤매고 극 속에 재현해내고자 하는 욕망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성숙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과정이었다. 윌리는 이상적인 아버지의 대리자 싱글맨과 벤을 창조하여 가치관, 직업관, 교육관을 확립하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벤의 답변과 인정을 받고자 한다. 비프는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때면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정을 받고자 집으로 돌아온다. 해피는 비프의 그늘에 가려 윌리의 관심을 덜 받았지만, 윌리의 사후에 그의 꿈을 계승함으로써 평생 얻고자 했던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인격형성과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자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정신적인 결속을 간과하고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만을 부각시킨다. 오늘날 ‘아버지로 살아가기’라는 화두는 고개 숙인 아버지들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아버지들은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경제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단절되어 소외당하며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의 혼란과 성공 딜레마에 빠져 불안하다. 역으로 이러한 불완전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인정하고 축복해주며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재하는 아버지가 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다. 아버지로서의 정체성과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위기에 처한 우리의 아버지를 가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자녀의 교육자로서의 본래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녀들과 정신적인 결속을 강화하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의 아버지의 자리와 역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위기 및 아버지의 위기를 말하는 담론이 끊임없이 대두된다. 특히 교육열이 높고 자식농사에 대한 투자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위해 아이들과 해외로 떠나고 아버지는 남아서 돈벌이를 하는 ‘기러기 가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탄생시켰다. 이는 아버지에게는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경제적 역할만을 부여하고 자녀들을 인정해 주고 정신적 성숙과 정체성 확립을 돕는 인생의 안내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박탈함으로써 거대한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부재라는 외로움과 상처를 주게 된다.

결론적으로 『세일즈맨의 죽음』이 밀러의 자전적인 성장과정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볼 때 로만 집안의 3대에 걸친 부자관계를 통하여 밀러 자신이 느꼈던 심리적인 ‘아버지의 부재’는 단순히 아버지의 경제적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부재가 자식들의 성장에 끼치는 다양한 양상을 통해 볼 때, 아들들이 바라는 아버지상은 가족의 부양자라는 아버지의 경제적 역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인정해 주고 정신적 성숙과 정체성 확립을 도와주는 인생의 안내자이자 교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Bibliography

1. Primary Reference

Miller, Arthur. *Death of a Salesman*. New York: The Viking P, 1969.

2. Secondary Reference

Bates, Barclay. "The Lost Past in Death of a Salesman." *Modern Drama* 11, 1968.

Bigsby, C. W. E. "Death of a Salesman: In Memoriam." *Arthur Miller's Death of a Salesman,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1988.

_____. *Modern American Drama 1945-1990*. Cambridge: Cambridge UP, 1992.

Bloom, Harold. Ed. "Introduction." *Arthur Miller's All My Sons*. New York: Chelsea House, 1988.

Carson, Neil. *Arthur Miller*. London: MacMillan, 1982.

Clurman, Harold. Ed. *The Portable Arthur Miller*. New York: The Viking P, 1971.

Gottfried, Martin. *Arthur Miller: His life and Work*. Cambridge: DaCapo P, 2003.

Dusenbury, Winifred. *The Theme of Loneliness in Modern American Drama*. Florida: Univ. of Florida P, 1960.

Feldman, Steven. "Weak Spots in Business Ethics: A Psycho-Analytic Study of Competition and Memory in *Death of a Salesm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44.4(2003).

Field, B. S. "Death of a Salesman."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18, 1972.

Gordon, Lois. "Death of a Salesman: An Appreciation." *The Forties: Fiction, Poetry, Drama*. Ed. Warren French. Deland: Warren French, 1969.

Hadomi, Leah. *The Homecoming Theme in Modern Drama: The Return of the*

- Prodigal: "Guilt to be on Your Side."* New York: The Edwin Mellen P, 1992.
- Hogan, Robert. *Arthur Miller*.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 1967.
- Kennedy, Sighle. "Who killed the Salesman?." *Catholic World*. 17, 1950.
- Kim, Jong-sun. *Arthur Miller: Recognition of Self and Society*, Taegu: Keimyung UP, 1982.
- Lewis, Allen. *The Contemporary Theatre*. New York: Crown P, 1971.
- Martin, Robert. *Arthur Miller: New Perspective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82.
- _____. "Arthur Miller and the Meaning of Tragedy." *Modern Drama*. 13 (May, 1970).
- Miller, Arthur. *All My Sons*. Harmsworth: Penguin Books, 1980.
- _____. *Arthur Miller's Collected Plays with an Introduction*. London: Cresset, 1967.
- _____. "The Family in Modern Drama." *The Theater Essays of Arthur Miller*. Ed. Robert A. Martin. New York: The Viking P, 1967.
- _____. *Salesman in Beijing*. New York: The Viking P, 1984.
- _____. *Timebends*. New York: Grove, 1987.
- Mottram, Eric. *American Theater*. London: Edward Arnold Ltd, 1967.
- Rice, Elmer. "American Theater and Human Spirit." *American Playwrights on Drama*. Ed. Horst Frenz. New York: The Viking P, 1965.
- Rosefeldt, Paul. *The Absent Father in Modern Drama*. New York: Peter Lang, 1995.
- Schneider, Daniel. "Play of Dreams."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New York: The Viking P, 1971.
- Weales, Gerald. "Arthur Miller: Man and His Image."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New York: Penguin Books, 1981.
- _____. "Arthur Miller's Shifting Image of Man." *Arthur Miller: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9.
- Williams, Raymond. "The Realism of Arthur Miller." *Arthur Miller: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9.

왕영균. “현대미국희곡에 나타난 남성성의 문제: 『세일즈맨의 죽음』, 『진짜 서부』, 『울타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3.

이유섭. 「동성연애와 도착증」, 『우리시대의 욕망 읽기: 정신분석과 문화』. 라깡과 현재 정신분석학회 편저. 서울: 문예, 1999.

정옥분. 『아동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2003.

조야, 루이지. 『아버지란 무엇인가』. 이은정 역. 서울: 르네상스, 2009.

줄리엣, 필립. 『노아의 외투: 아버지에 관한 라깡의 세 가지 견해』. 홍준기 역. 서울: 한길사, 2000.



<Abstract>

An Aspect of Absent Fathers in *Death of a Salesman*

Sung, Kyung-mi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Il-sang)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at fathers should be responsible not only as financial providers but also a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guardians of their sons, through examining father-son relationships in the Loman family.

In *Death of a Salesman*, sons suffer from the inability of their fathers, financially and emotionally. Willy grew up without his father. Craving a father figure, he searched for his absent father and tried to duplicate him, finally creating surrogate fathers like Singleman and Ben. Living in a materialistic society, he admired his surrogate fathers for their financial victory. Envious of their success, Willy adopted their way of life as his ideal. But, their obsolete ways of attaining success didn't help him to get what he expected to get because they are too outdated and not suitable for the reality of Willy's times. Besides, while he was devoted to achieving financial success, he developed an emotional detachment from his family, especially his sons. Willy, fatherless father, is unable to reach his own absent father and this leads to the tragic result such as Willy's downfall.

Although his sons have grown up under Willy's influence, they also suffer from the absence of a respectable father. Having witnessed his father's adultery, Biff lost all respect and trust in his father. Greatly disappointed, he also lost the drive to be successful. Denying his father's presence in his life, he became a drifter away from home. Happy doesn't keep a goo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0.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either. But, it is not because he doesn't respect his father but because he grew up under the neglect and ignorance of his father. Whereas Biff was the hope of his father, Happy had to endure a distance from his father. As a result, he is emotionally remote from his father. As *Death of a Salesman* unfolds, however, it presents the sons' journeys in which they all tried to establish their identities while struggling with the images of their impotent fathers. The father figure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sons' characters.

Regarding *Death of a Salesman* as Arthur Miller's autobiographic reflection, sons who have suffered from the incompetence and inability of their fathers can be seen to be an incarnation of Miller's own ego as a son of an impotent father. In this respect, Arthur Miller explored the desirable father-son relationship by analyzing different father-son relationships. Throughout Willy's yearning for a financially successful father, Biff's desire for an ethically respectable father, and Happy's need for an emotionally attached father, Miller suggests that father should not be evaluated by only one function, but by multi-functions. In other words, fathers are not only financial providers but also psychological and emotional guardians of sons.